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N EFFECTIVE STRATEGY FOR A COMPANIONSHIP  
EVANGELISM MINISTRY IN A LOC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HANWOORI PRESBYTERIAN CHURCH**

written by

**JUNGCHUL SHIN**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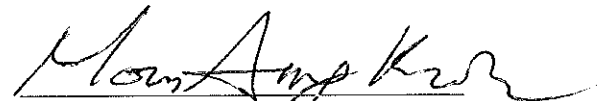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Sunil Kim



Moon Sang Kwon



Jin Ki Hwang

August 15, 2015

**AN EFFECTIVE STRATEGY FOR A  
COMPANIONSHIP EVANGELISM MINISTRY IN A  
LOC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HANWOORI PRESBYTERIAN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JUNGCHUL SHIN**

AUGUST 2015

지역교회에서의 동반자전도사역 활성화 방안  
- 한우리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김 선 일 교수

신 정 철

2015년 8월

## Abstract

An Effective Strategy for a Companionship Evangelism Ministry in a Loc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Hanwoori Presbyterian Church

Jungechul Shin

Doctor of Ministry

201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Considering the cultural changes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I argue that the paradigm of evangelism ministry needs to be changed. We should not persist in old methods of evangelism that are no longer culturally relevant. In this ministry focus paper, I introduce a new method of evangelism — companion evangelism — and present a practical strategy for revitalizing local churches' ministries of evangelism through this method.

This ministry focus paper consists of six chapters. Chapter 1 introduces the purposes and methodology of this study. Chapter 2 examines the cultural context of Korea today, describ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Korean culture in terms of secularism, religious pluralism, consumerism, sensualism, privatism, and others. Based on this current culture, I argue that today's Korean context needs a new method of evangelism: the companion-evangelism method.

In chapter 3, I present the companion-evangelism method. First, I explore its concept, principles, background, and biblical foundations, and then I argue for the Korean churches' need for the companion-evangelism method today. Chapter 4 introduces two local churches that have used the companion-evangelism method. It describes the histories, backgrounds, and pastoral philosophies of those churches and demonstrates how the method has aided those churches' ministries of evangelism and revitalized them.

In chapter 5, I present a practical strategy for revitalizing the Hanwoori Church through companion-evangelism. After surveying the Daegu area where the church is located in terms of religious and social-cultural features, I describe the history, vision, and current state of the Hanwoori Church. Then I explain the strategy, which has three steps: building relationships, making a contact point, and becoming a spiritual companion. The chapter demonstrates how the Hanwoori Church is applying the method to its evangelism ministry and producing good results. In the final chapter, I summarize and conclude this ministry focus paper with the hope that the companion-evangelism method will help many churches' ministries of evangelism.

Theological Mentors: Sunil Kim, Ph. D.

Moon Sang Kwon, Ph. D.

Jin Ki Hwang, Ph. D.

## 현 사

이 논문을 아들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로 지원해주신 부모님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칩니다.

## 감사의 말씀

연약한 사람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에 해오게 하심과 논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동반자전도의 착상을 주신 성령하나님의 은혜와 플러신학교에 김세윤박사님을 비롯 많은 교수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교회를 섬겨왔지만 영혼구원하여 제자삼고 선교하기 위해서 우주처럼 큰 공간에서 같은 뜻을 품고 한마음으로 동역해 온 대구 한우리교회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옆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조언과 위로를 통해 용기있지 않고 주의 길을 달려오는데 성심 성의껏 내조했던 사랑하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나의 가족인 큰딸 유리와 둘째 이삭과 막내 한나에게도 고마움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시고 좋은 멘토였던 산본 은혜왕성교회의 호병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플러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논문지도를 해주셨던 김선일 박사님과 사무실에서 행정적인 도움을 주셨던 김태석 부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주의 일에 힘썼던 모든 동역자되신 목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1
제 2 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	4
 제 2 장 한국적 상황과 새로운 전도의 방법	
제 1 절 한국적 상황에 대한 진단 .....	6
1. 사회적 관계의 단절 .....	6
2. 행복과 의미의 추구 .....	8
3. 공동체의 갈망과 추구 .....	10
제 2 절 한국사회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 .....	11
1. 세속주의 .....	11
2. 종교다원주의 .....	13
3. 공감의 필요 .....	15
제 3 절 한국적 상황에서 새로운 전도의 방법 .....	16
1. 관계의 회복 .....	16
2. 여정의 필요 .....	18
3. 가정의 재정립과 공동체성의 회복 .....	19
제 4 절 한국사회 새로운 세대의 특징 .....	21
1. 소비주의 .....	22
2. 감성주의 .....	23
3. 개인주의 .....	24
 제 3 장 동반자전도 원리와 필요 .....	27
제 1 절 동반자전도 원리 .....	27
1. 동반자전도 개념 .....	27



2. 동반자전도의 원리 .....	30
3. 동반자전도의 배경 .....	31
제 2 절 동반자전도의 신학적 근거 .....	33
1. 예수님의 동반자전도 .....	33
2. 예수님의 동반자전도의 본질 .....	35
제 3 절 동반자전도의 성경적 근거 .....	36
1. 예수님의 모델 .....	36
가. 관계적 차원 .....	37
나. 사회문화적 차원 .....	39
다. 영적 차원 .....	41
2. 마태의 모델 .....	42
제 4 절 동반자전도의 필요 .....	44
1. 교회성장의 한계 .....	44
2. 선교적 교회와 동반자전도 .....	45
3. 한국적 상황에서 새로운 동반자전도의 필요 .....	46
제 4 장 동반자전도의 사례연구 .....	50
제 1 절 타지키스탄의 나침반교회 .....	50
1. 타지키스탄의 소개 .....	50
2. 타지키스탄 전도대상자 필요와 접촉점 .....	51
가. 타지키스탄 전도대상자의 필요 .....	51
나. 접촉점 .....	54
3. 관계를 통한 동반자전도 .....	57
가. 영어와 컴퓨터사역 .....	57
나. 비전스쿨사역 .....	58
다. 소그룹리더를 통한 동반자전도 .....	60
제 2 절 대전의 나눔의 교회 사례연구 .....	61
1. 지역 상황 .....	61

2. 대전광역시 유성구지역 전도대상자의 필요와 접촉점 .....	63
가. 유성구지역 전도대상자의 필요 .....	63
나. 접촉점 .....	64
3. 사회문화적 차원의 동반자전도 .....	66
제 3 절 사례연구를 통한 동반자전도 사역의 평가 .....	68
1. 사회문화적, 관계적동반자전도의 병행 .....	68
2. 사회적 접근을 통해 관계적 목장소그룹으로 인도 .....	71
3. 접촉점으로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소그룹이 중요 .....	71
제 5 장 한우리교회의 동반자전도사역 활성화방안 .....	73
제 1 절 한우리교회의 지역적 환경 .....	73
1. 한우리교회 지역적 특성 .....	73
가. 대구의 현황과 종교적특성 .....	73
나. 북구 복현2동의 특성 .....	76
다. 대구시민의 정서 .....	77
2. 복현2동의 지역적 필요 .....	78
3. 복현2동의 접촉점 .....	80
제 2 절 한우리교회의 교회현황 .....	81
1. 한우리교회의 역사와 비전 .....	82
가. 역사 .....	82
나. 비전 .....	83
2. 한우리교회 현황 .....	84
제 3 절 한우리교회의 동반자전도사역 활성화 방안 .....	85
1. 동반자 관계 맺기 .....	86
가. 사회문화적 접근 .....	86
나. 접촉점 활용하기 .....	89
2. 전도와 후속 양육 .....	92
3. 여정을 통해 동반자 되어주기 .....	96

4. 동반자전도지역 평가와 보완 .....	97
가. 평가 .....	97
나. 보완 .....	98
제 6 장 결론 .....	99
제 1 절 요약 .....	99
제 2 절 제언 .....	101
부록 .....	102
참고 문헌 .....	104
Vita .....	108

## 표 목 차

<표 1> 부부세미나 프로그램구성표 .....	63
<표 2> 부부세미나 프로그램구성표 .....	73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최근에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가 많다. 이러한 시점에서 약화되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활력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전도가 잘 안되어 많은 대안들이 나왔으나 뚜렷한 성과와 열매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자는 한국교회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의 성장 발전의 대안으로 새로운 전도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느꼈다. 오늘날 기독교는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약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세계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교회 성장이 정체되어 오고 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풀어야 할 숙제를 갖게 되었다. 현재 한국사회는 소통이 이슈가 되어 있다. 한국사회의 단절은 이제 여러 가지의 각종 통계자료에서 나타나듯이, 심각한 수준에 미친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하였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한국사회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관계도 어느 때 보나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까지의 한국교회의 전도방식이 일방적이고 선포적이었던 반면 이제는 새로운 태도로 삶속에서 이웃의 필요를 채우며 섬기는 전도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처음으로 이와 같은 선교적 교회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인도에서 35년간 선교해 온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 bigin)이다. 그는 인도에서 선교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귀국한 후 영국교회가 점점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약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변화의 사람들의 삶속으로 들어가는 선교적 교회론을 주장하게 된다.

선교적 교회론에서 선교(mission)는 교회가 수행하는 한 가지 사명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섬김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총체적 사역을 의미하게 되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과 구분된 종교적 성지로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보여주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의 공동체로 재인식된다.<sup>1)</sup> 따라서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 세상속으로 파송 받은 제자들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선교적 교회론의 입장에서 한국사회에서 약화되어 가는 교회의 상황을 다루고자한다. 다시 말해, 교회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본질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과 환경을 잘 연구하여 한국적 상황을 선교적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하겠다. 더욱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약화되는 모습에서 새로운 세대인 젊은 세대가 교회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많은 부분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화적인 문제와도 연관된다고 판단하여 한국사회 새로운 세대의 특징도 본 연구에서 심도있게 다루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많은 선교를 해 왔지만 한국사회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교회에 나오는 수가 감소되며, 불과 일, 이 십년사이에 그리스도인이 이 삼백 명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겸손하게 시대상황과 문화를 연구하여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시대를 ‘포스트모던니즘’이라고 말한다. 포스트모던니즘은 세속화와 종교다원주의를 말한다. 이러한 포스트모던니즘의 도전들은 우리의 생활양식에 많은 영향을 끼쳐 시대와 문화에 따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도 달라진다 하더라도 복음이 담고 있는 본질은 바뀌지지 않는다.

그러나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복음이 전혀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언어와 모습으로 다가갈 수는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것으로서 복음이 수용되려면, 즉 납득할 만한 것이

1) 김선일, “선교적 교회의 패러다임에서 조망하는 교회학교 사역,” *복음과 선교*, 2012년17권, 1.

되려면 그 사람들의 언어로 전달되어야 하고,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상징들로 덧입혀져야 한다.<sup>2)</sup>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따른 사회와의 공감 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오늘날의 시대는 그 이전 시대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처한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뉴비긴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의 어려움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것이 무차별적인 정보의 바다 가운데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이 시대를 진단한다. 복음은 수백만 가지의 의견들 중 하나를 대변하는 것일 뿐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던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이 당신에게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말한다.<sup>3)</sup> 따라서 시대가 변화 되어감으로써 우리도 변해야 한다.

예수님의 사역방법도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시고 사역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본으로 보여 주셨다. 이제 한국교회도 교회정체현상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 사회를 연구하고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도의 방향을 찾아가야 할 때이다.

특별히 동반자 전도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은 관계가 단절된 한국사회에서 사람들의 문화와 상황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고 일방적인 복음전도 이전에 그들의 필요를 따라 접촉과 여정을 중요시하고 진리의 길을 찾아 함께 가는 영적 순례자로서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2005년부터 만 4년간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서 사역 경험과 한국에서 만 5년 반 동안 사역경험들을 통하여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시대에 동반자 전도가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이 적용할수 있는 새로운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타지키스탄에서 나침반 교회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동반자 전도 원리로 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둔 경험을 갖고면서 이와 같은 사역의 경험과 열매들이 한국적 상황에서 동반자 전도를 전개하는데 많은 기초와 발판이 되었다. 특히, 젊은 새로운 세대에게서 동반자 전도가 더욱 효과적이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전도가 잘 안 된다. 이제 그동안의 한국교회의 전도의 방식과

2) Lesslie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의 복음(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허성석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8), 231.

3) Ibid., 387.

방법을 새로운 시대와 문화에 맞는 전도의 방식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시대 변화에 맞는 전도의 접촉점을 찾아야 한다. 기존의 전도방법으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다음 신세대들을 접촉하기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지역교회에서의 동반자전도사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따라서 본 논문은 “지역교회에서의 위한 동반자전도사역 활성화방안”을 본 논문의 제목으로 제시하며, 특히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와 대 기독교의 관계가 단절되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전도할 것인가를 주제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1장의 서론에서부터 시작하여 2장에서는 한국적 상황과 새로운 전도의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적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한국사회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과 한국적 상황에서 새로운 전도의 방법과 한국사회 새로운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 볼 것이다.

3장에서는 동반자전도의 원리와 필요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동반자전도의 원리와 신학적 근거와, 동반자전도의 성경적 근거와 필요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4장에서는 동반자전도 사례연구를 통해서 타지키스탄의 나침반교회와 대전의 나눔의 교회의 동반자전도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사례연구를 통한 동반자전도 사역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5장에서는 한우리교회 동반자전도사역 활성화방안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우리교회의 지역적 환경과 한우리교회의 교회현황에 대해서 밝힐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자의 사역을 평가함으로써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보완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요약하고 몇 가지 제언과 함께 본 논문을 맺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논증하기 위해서 2장과 3장은 이론적인 부분은 문헌연구에 치중할 것이며, 4장은 타지키스탄의 나침반교회와 대전 나눔의 교회의 사례를 인용할 것이며 5장은 한우리교회의 동반자전도사역 활성화방안을 다룰 때



는 지역조사를 위한 인터뷰와 본 연구자의 교회의 사역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할 것이다.

## 제 2 장

### 한국적 상황과 새로운 전도의 방법

본 장에서는 한국적 상황과 새로운 전도의 방법을 논하기 위해서 한국적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한국사회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울러 한국적 상황에서 새로운 전도의 방법을 제시할 것이며 한국사회 새로운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 제 1 절 한국적 상황에 대한 진단

본 절에서는 한국적 상황에 대한 진단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먼저, 사회적 관계의 단절에 대하여 알아보고, 행복과 의미의 추구에 대하여 언급할 것이다. 또한 공동체의 갈망과 추구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 1. 사회적 관계의 단절

얼마 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사회 관계의 단절 현상을 잘 나타내 준다. 우리 사회는 각종 통계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이웃 간의 단절로 인한 심각한 현상이 각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4년 5월 23일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에서 세계 각 국가의 사회지표를 기초로 사회자본지수를 계산해 추정했다. 이 자료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국의 사회자본은 5.07으로 OECD 32개국 평균 5.80을 밑도는 수준으로, 전체 32개 국가 중 29위로 나타났다.<sup>4)</sup> 그런데 이 자료에서 우리

4) 현대경제연구원,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공적신뢰 회복을 위한 국가시스템 개조가 필요하다",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2014년 14-21호, 서론요약.

가 참고할만한 사실은, 사적 차원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신뢰가 매우 부족한 편으로 평가되었다. 이 말은 우리사회가 이웃 간에 관계가 많이 단절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높은 자살율과 이혼율이 이를 잘 반영해 준다고 하겠다.

먼저, 자살률을 보면 2013년 보건복지부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에 대한 사망률은 10만 명당 33.3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자살에 의한 사망률 12.6명에 비해 2.6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이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또한 이혼율을 보더라도 통계청의 ‘2010 인구 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기준으로 이혼 상태인 가구주는 126만 7000명으로 5년 전의 36만 3000명 보다 40.2퍼센트 증가하였으며 이 수치는 전체 가구의 7.3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러한 이혼 가구주의 수는 10년 전의 2.3배, 20년 전의 7.3배, 30년 전의 18.1배에 달하는 수준이다.<sup>6)</sup>

또한 오늘날 한국인은 삶의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이러한 삶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에는 경제적인 이유 보다는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문제이다.

시대일보 2015년 6월 5일자 사회면을 보면, “한국인 어려울 때 의존할 사람 없다”란 기사가 실렸다. 한국인이 각종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지만 정작 어려울 때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또 한국의 교육과 안전은 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에 포함됐으나 삶의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에서는 하위권에 그쳤다. 사회적 연계는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데 한국인은 72퍼센트만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OECD 평균 88퍼센트 보다 16퍼센트포인트 낮다.<sup>7)</sup> 이런 통계자료가 말해주듯 현재 한국사회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한국 사회의 관계 단절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엄기호는 그의 책 *단속사회*에서 “한국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소통일 것이다”라고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사회는 이웃과의 단절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결속이 느슨해지면서 사회 병리적 모든 문제가 ‘소통’과 연관이 된다. 이를 잘 반영이라도 하

5) 보건복지부 통계포털(stat.mw.go.kr), *OECD Health Data* (2013 요약집), 33.

6) 권계화, “우리나라 이혼율자료에 대한 특성분석,” *여성연구논총* (2011) 제26집, 93.

7) “한국인 어려울 때 의존할 사람 없다”, 시대일보, 2015, 6, 5.

듯 경향신문은 2009년 “한국사회, 소통합시다”라는 특별 기사를 실은 적이 있다. 여기서 한국을 ‘불통공화국’이라고 불렀다. 실제로 이 신문이 집권층의 소통능력에 대해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도 채 되지 않는 낙제점이 나왔다.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소통대신 불통과 적대라는 지적이다.<sup>8)</sup> 또한 탁석산은 그의 책 *행복스트레스*에서 개인주의와 인터넷의 발달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짜관계로 만들었다고 한다.<sup>9)</sup>

이처럼 개인주의와 인터넷의 발달뿐만 아니라 스마트 폰도 우리를 더욱 고립되게 만든다. 요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누구나가 스마트 폰을 쉽게 자주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가 오고가는 모습은 많지 않다.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할 뿐이며 서로가 간섭도 하지도 않으며 간섭받기도 싫어한다. 우리는 빠른 경제성장 대신 잃은 것도 많고 그로 인한 후유증도 많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성장 대신에 경쟁과 스트레스로 인한 많은 병폐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아이들의 학원 폭력과 높은 자살율과 이혼율 등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오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소통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 2. 행복과 의미의 추구

탁석산은 그의 책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최근 한국인이 걸어온 길을 생존(-1961년)-생활(1961-1992년)-행복(1993-2000년)-의미(2000년-)의 시대로 구분한다.<sup>10)</sup> 이 네 가지 시대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삶의 변화과정을 보여준다. 또 이러한 한국인들의 삶의 변화과정은 복음이 어떻게 사회와 문화 속에서 접촉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책에 나온 네 가지 시대의 특징을 요약한다.

첫 번째, 생존의 시대는 조선시대의 몰락부터 1961년 군사 정권의 혁명까지의 시기이다. 이때는 건국의 시기였으며, 생존이라는 절대적인 과제가 주어졌던 시기였다. 생존 경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야만 하는 시기였다.

두 번째는 생활의 시대다. 이 시기는 박정희 정권이 경제개발계획을 세워 잘살아

8) 임기호, *단속사회* (파주: 창비, 2014), 166.

9) 탁석산, *행복스트레스* (서울: 창비, 2013), 108-109.

10) 탁석산,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서울: 창비, 2009), 34. (이하의 생존-생활-행복-의미라는 네 가지 시대에 대한 이하의 요약은 탁석산의 다음 저서를 기초로 한다).

보지는 케치프레이즈아래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모색하기 시작한 시기로서 80년대 중반 문민정부가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에 맞섰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며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생활을 더 갈망하였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열심히 일하면 사회적 신분의 상승도 가능했고 일한만큼 행복하고 생활의 여가를 갈망하며 누리려 했던 시기이다.

세 번째는 행복의 시대다. 이 시기는 87년 6월 항쟁을 시점으로 20세기 말까지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이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자 민주주의를 원하게 되었다.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권리에 대한 두 가지 열망이 짝트게 된 것이다. 특히 1980년대 후반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민주주의의 열망이 이전 경제적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선택하고 추구하고자 하였다.

네 번째로 의미의 시대다. 21세기에 들어서서는 한국사회가 뭔가 의미를 찾는 시기가 되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의미를 탐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 잘 살아보기 위한 생존의 시대를 거쳐 여가를 누리기 위한 생활의 시대도 거쳐서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한 행복한 삶도 추구해 보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이 의미 있게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듯싶다. 따라서 사람들은 각종 봉사과 기부도 해보면서 여행이나 동우회활동을 통해서도 의미 있는 삶을 찾고자 하였다.

이처럼 그동안 한국인들은 먹고 사는 생존의 시대를 거쳐 오고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생활의 시대를 거쳐 오고 자신들의 권리를 선택하고 추구하는 행복의 시대를 거쳐 왔다. 이제는 한국인들은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의미의 시대를 맞고 있다.

지난 수 십년간 종교적으로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가톨릭에서는 피정을 대중에게 개방하여 현대인들의 의미 추구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생산과 성장의 시대, 자기 행복시대에는 대중에게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불교가 오히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무욕의 삶과 산사체험 등을 통해 상당한 흡인력을 행사하는 것은, 행복의 시대에서 의미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증거다.<sup>11)</sup> 따라서 의미를 찾는 시기에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여정과 공동체가 키워드가 될 수 있겠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경제적 성장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온 만큼 다른 것들을

11) 김신일, *전도의 유산 오래된 복음의 미래* (서울: SFC출판부, 2014), 276-277.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찾은 민주주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제적 성장의 그늘아래 권위주의와 중앙집권적인 문화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하였다.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함께하는 과정을 원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삶에 함께 하고자 하는 여정이 공동체의 갈망과 추구로 나타나게 된다.

### 3. 공동체의 갈망과 추구

엄기호는 현재 한국 사회의 풍조를 동일인, 혹은 이해관계에 얽힌 이들과는 설 새 없이 접속하면서, 자신과 다르거나 무관한 타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차단하는 ‘단속사회’라고 명명한다. 그는 중산층 신화를 유포하며 오로지 시장경제를 보호하기만 하는 현 사회 체제 속에서 사람들의 인격적인 관계가 붕괴되고, 자기 안에 갇히는 사태를 비판적으로 진단한다. “타자와의 만남을 차단하고 그 만남을 구경으로 전환하며 자신의 세계에 만족하고 안도할 때 만남은 나르시시즘으로 포획된다.”<sup>12)</sup> 탁석산은 그의 책, *행복스트레스* 에서 맹목적으로 행복에 집착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행복의 실체를 ‘행복 스트레스’로 개념화하여 밝힌다. 그는 이 책에서 등장한 지 200년도 되지 않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시대의 키워드가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이런 사고방식이 어떻게 우리 삶과 관계를 왜곡하는지를 밝힌다.

김찬호는 그의 신작인 *모멸감* 에서 한국사회가 저성장 자본주의에 접어들면서 개인이 자본의 지위에 따라 잉여적 존재로 내몰리는 현실을 진단한다. “사회적 결속이 느슨해지고 사적인 영역에서도 친밀한 관계가 어려워지는 상황, 그렇다고 개인주의적 세계관이 형성된 것도 아니어서 타인의 시선에 늘 전전긍긍하는 삶은 모멸감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sup>13)</sup>고 한다. 위 세 사람 모두가 오늘날 한국사회의 관계의 단절을 말한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통해 단절된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

오늘날 한국적 상황에서 새로운 전도의 필요를 논할 때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은 ‘포스트모던의 도전’이라 말할 수 있겠다. ‘포스트모더니즘’을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어려운 개념이지만 세속주의와 종교다원주의로 대표될 수 있겠다. 이러한 세

12) 엄기호, *단속사회* (과주: 창비, 2014), 249.

13) 김찬호, *모멸감*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4), 143.

속주의와 종교다원주의는 오늘날 교회에 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사고와 행동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대의 특징으로 대표되는 ‘포스트모던의 도전’을 잘 이해해야 함은 선교적인 차원에서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겠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한국사회 포스트모던의 도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제 2 절 한국사회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

한국사회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과 필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그것은 세속화와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공감의 필요이다. 이제 이러한 도전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 1. 세속주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부터 세상은 속된 것, 세속적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산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곳, 구별된 곳으로 생각하여 왔다. 때문에 오늘날 거룩한 곳으로 알려진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세상을 섬기고자 할 때는 세속주의의 개념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속화라는 용어로 의미되는 바가 상황에 따라 심각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서구 교회는 세속화를 일차적으로 ‘비 기독교화’(de-christianization)와 그 사회적 결과로 이해하는 반면, 한국 교회는 이 용어를 한결같이 현대의 이데올로기들, 유행하는 풍조들, 또는 종교적 혼합주의와 같은 세상 정신의 유입과 관용을 통한 교회의 영적 타락을 서술하는 데 사용한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세상을 본받는 것’ 즉 ‘세상화’(verwereldijking)의 개념과 거의 동일하다. 서구적 이해가 사회적이며 현상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는데 비해, 한국적 견해는 영적이며 교회적인 측면을 강조한다.<sup>14)</sup> 세속화란 개념을 복음적으로 진지하게 분석한 대표적인 신학자인 칼 바르트(Karl Barth)의 정의에 따르면, 교회가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세속화’라고 불렀다.<sup>15)</sup> 결론적으로, 교회가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세속화라고 불렀는데, 이런 견지에서

14) 이정석, *세속화시대의 기독교* (서울: 이레서원 2000년), 17-18.

15) Ibid., 36.

불 때 한국사회에서의 세속화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종교다원주의 사회의 영향 하에서 세상에 물들어 가는 모습과도 같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속화된 사회에서의 기독교선교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있다. 그것은 쉬링크(Shenk)가 이것을 전도적인 접근으로서 “선교적인 약속”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에 의해 이 세상에서 성육신한 선교이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을 재 세속화해야 한다.<sup>16)</sup> 이런 면에서 불 때 이제 한국교회는 그동안 사회의 빛과 거울이 되지 못한 것을 반성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실천해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교회성장과 기복적 신앙에 치우쳐 세속화를 부추겨왔다면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때이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삼아 선교해야 하는데 있다면 이러한 교회 본질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는 오늘날 세속화되는 사회 속에서 소금의 짠 맛을 내어 오염된 우리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까지 들어와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에 물들어 교회마저 세속화된다면 세상엔 희망이 없다.

세속화는 영속적이며 우주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우리 시대에서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를 ‘세속화의 시대’라고 부른다.<sup>17)</sup> 1988년 한국을 방문하여 약 10개월 동안 급성장한 한국 교회를 면밀히 분석하며 연구한 레오 오스터롬(Leo Oosterom)은 “한국의 모든 교회가 가까운 미래에 직면하게 될 최대의 이슈는 세속화의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실로 유럽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기독교의 존속과 발전은 우리가 어떻게 이 현대 세속화의 강력한 흐름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과 그 대답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신학자들과 지도자들은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받고 있다.<sup>18)</sup> 이제는 세속화의 문제가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만이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기에 세속화의 도전을 극복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사회는 이미 학교 교육부터 세속화된 문화를 가르치며 사회구조가 종교

16) Han Soo Park, "A Study of Missional Structures for the Korean Church for Its Postmodern Context.", Ph.D.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8, (이하 영문번역은 본 연구자의 해석에 기초함을 밝힘). 107요약인용.

17) 이정식, *세속화시대의 기독교*, 15.

18) Ibid., 17.



와 별도로 분리된 상황가운데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큰 영향을 끼치는 문화의 해악은 이미 크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녀 간의 불륜은 기독교 윤리에서는 금기시 되지만 대중문화의 매체인 영화를 통해서 불륜을 미화시키면 불륜이 마치 아름다운 낭만으로 바뀌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든다. 이처럼 잘못된 대중문화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한 결과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올바른 윤리관과 도덕관을 차츰 사라지게 만들며 판단력 자체를 감소시킨다.<sup>19)</sup>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중문화의 세속적 성격은 사람들의 사고의 틀과 행동을 지배하며 잘못된 길을 가도록 이끈다. 이는 오염된 물이나 공기는 피하기가 어려워 접하면 접할수록 사람들의 건강에 큰 해악을 가져다주듯이 오염된 대중문화는 우리의 일상생활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어서 삶을 황금만능주의나 쾌락지상주의와 같은 저급한 상태로 인도할 뿐 아니라 성범죄나 폭력과 같은 사회의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의 심신을 병들게 해서 국가의 장래를 위협하고 있다.<sup>20)</sup> 그런데 이러한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인한 세속화의 근원을 보면 포스트모더니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세속화의 발전은 종교의 쇠퇴를 뜻하는 것인데 특별히 기독교의 쇠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대중문화의 발전으로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다.<sup>21)</sup> 이처럼 세속적인 대중문화의 발전은 세속화를 가중시켜 왔고 기독교의 쇠퇴를 가져왔다.

## 2. 종교다원주의

한국사회 포스트모던의 두 번째 도전은 종교다원주의다. 먼저, 다원주의를 말하고자할 때 세계관이 중요하겠다.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다. 오늘날은 세상을 보는 관점인 세계관에 따라 다양하게 본다. 세계관에 따라 다양하게 세상을 보는 안목이나 관점을 다원주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종교다원주의는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절대 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도 모두 보는 세계관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말이 된다. 이런 종교적 다원주의는 세상의 세속화를 더욱 부추긴다. 이제는 이러한 시대적

19) 방선기, *대중문화도 기록해질 수 있는가?*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9), 222.

20) 신국원, *문화이야기* (서울: IVP, 2002), 25.

21) 이원규, *종교의 세속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0.

분위기가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그러나 신국원은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의 지적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진부한 말이 되어 버렸다.” 즉 다양한 문화와 종교 그리고 삶의 양식이 섞여있다는 사실 자체는 새로운 이야기일 수 없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은 다원성 자체가 공인되고 절대적으로 신봉되는 것을 환영하는데 있다. 즉 그것은 과거처럼 다원성을 묵인 또는 용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축하하고 적극적으로 확증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뉴 비긴은 그의 책, *다원주의 회의* 복음에서 종교 다원주의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의미를 확실하게 논증하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종교 다원주의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진리인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함께 종교적 상대주의인 종교다원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아무리 종교다원주의라 하더라도 복음이 절대적 진리라는 우리의 확신을 잊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다양한 문화와 현실을 무시하고 생활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을 포용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호와, 취미, 관심사에 맞춰서 원하는 것을 쉽게 찾고 선택할 수 있다. 갈수록 사람들의 취향과 관심도는 더욱 세분화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의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세분화된 취향과 관심도에 따라서 세분화되며 자연스럽게 다원화사회로 나아간다.<sup>22)</sup> 심지어 종교 분야에서도 조직화된 기성종교집단도 거부하게 된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기존 교단들은 점차 쇠퇴하고 세계의 다양한 종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여타 다른 사회집단도 다양한 성격과 가치를 주장하는 수많은 공동체로 전환된다. 서로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상대방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그런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사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관이 점점 더 발달하게 될 것이다.<sup>23)</sup> 이와 같은 종교다원주의 변화들은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22) Edward S. Cornish, *사이버충격*, 이관용 역 (서울: 엘테크 출판, 1997), 243.

23) 유낙환, “정보화 시대의 대중문화에 대한 기독교문화 연구,” D.Min.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4, 41.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우리 나라의 종교 상황과 시대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종교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는 타종교에 대한 무조건 배타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들과 적절한 관계와 대화는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복음이 담는 그릇은 그 시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그릇에 담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속주의와 종교다원주의로 대별되는 포스트모던시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오늘날의 시대 분위기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으리라 본다.

### 3. 공감의 필요

한국사회 포스트모던니즘의 세 번째의 도전은 우리 사회의 공감의 필요이다. 종교다원주의와 갈수록 세속화 되어가는 시대에 살면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있는 선천적인 공감의 코드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공감의 코드를 갖고 있다. 그러기에 서로가 상대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던시대의 다종교사회인 한국사회에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공감의 코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공감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 공감에 앞서 나온 단어의 개념 중에 동정이란 말이 있는데, 동정은 다른 사람의 곤경을 보고 측은함을 느끼는 감정이며 수동적인 입장을 의미하는 동정과 달리 공감은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하여 자신이 상대의 아픔에 끼어들어 그들의 경험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곤경을 정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촉발 되고, 현재 그들의 조건을 따져 본 후,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감정적 반응과 실천적 반응이 뒤따르는 것을 공감이라고 본다.<sup>24)</sup> 이렇게 볼 때 다원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세상의 우리 이웃들의 아픔과 필요에 공감하고 그 필요를 채우며 섬기는 것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테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관계는 우리 생존의 핵심이다. 우리는 관계 속에

24) Jeremy Rifkin, *공감의 시대*, 이경남 역 (서울: 민음사, 2010), 19-20 요약인용.

서 잉태되어, 태어나면서 관계를 시작하고,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sup>25)</sup>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의도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로 이해한다. 즉,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다. 목적은 인생을 보다 더 큰 맥락에서 해석함으로써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개인은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맥락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싶어한다.<sup>26)</sup> 따라서 갈수록 사람들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다원주의화로 변해가는 사회에서, 교회는 사회적인 공감의 필요를 현대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더욱 깊고 공감적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이런 한국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전도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 볼 것이다.

### 제 3 절 한국적 상황에서 새로운 전도의 방법

본 절에서는 한국적 상황에서 새로운 전도 방법의 대안으로 관계의 회복과 여정의 필요와 가정의 재정립과 공동체성의 회복을 다룰 것이다.

#### 1. 관계의 회복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복음전도의 장애가 사회적 관계단절이라고 할 때 새로운 전도의 방법으로 단연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관계의 단절이 본 장의 1절에서 탁석산은 개인주의와 인터넷의 발달과 압기호는 소통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새로운 전도의 방법을 찾고자 할 때 먼저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

개인주의 시대의 개인은 외롭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남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살기 어렵다. 개인주의 시대는 그런 관계를 하나에서 열까지 자신이 만들고 유지해야만 한다. 가족도 예외가 아니다. 예전에는 개인이 지금처럼 개별화되지 않았다. 가족의 일원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가족이란 공동체가 자신의 삶이었다. 따로 가족과 관계를 맺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는 없었다.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이

25) Johnson, David W. and Roger T. Johnson. *Cooperation and Competition: Theory and Research* (Edina MN: Interaction Books, 1989). 105.

26) Buhler Charlotte, "Some Observations on the Psychology of the third Force."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Vol. 5, 55.

웃도 마찬가지다. 마을은 모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었기에 이웃과의 관계도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었다. 어찌 보면, 비합리적인 요소도 있었겠지만 의식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려 노력하는 수고는 덜 수 있었다.<sup>27)</sup> 그러나 오늘날 개인주의 시대에 개인은 인간관계의 단절로 외롭고 공허하다. 이러한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터넷의 사용, 카카오톡, 페이스북도 사용하지만 이러한 것은 사람들의 근원적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탁석산이 말한 대로 가짜관계를 만들어 내어 진짜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된다. 사람과의 진짜관계는 진정한 만남을 통해 관계로부터 형성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에 사람은 공동체로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되어있다.

레이드에 의하면, “어디서나 사람들은 깊은 인간관계에 굶주리고 있다. 그들은 급변하고 비대해 가는 세상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는 관계를 필요로 한다”<sup>28)</sup>고 한다. 아무리 시대의 문화나 우리의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단절된 구조에서 살도록 만들더라도 우리에게는 레이드의 지적처럼 깊은 인간관계에 굶주려 있으며 소속감을 주는 관계를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 또한 엄기호는 그의 책 *단속사회*에서 한국사회 소통의 부재의 원인을 설명한다.

한국이 오랫동안 일방통행의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쳐 온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대다수의 우리가 젊은 시절을 보낸 학교 사례를 떠올려보면 잘 알 수 있다. 독재시절에는 전국의 모든 ‘국민 학생’이 아침 9시면 운동장에 모여 국민의례를 치렀다. 3월이 되면 “개구리 하품하고 꽃망을 터져 나오는 새봄을 맞아”로 시작하는 교장의 훈화말씀을 열중쉬어 자세로 들어야 했다. 교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고, 단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했다. 말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자의 권력에 복종하는 몸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절이었다. 권력은 이처럼 사람을 언제나 ‘말할 수 있는 자’와 ‘그 말을 귓소리 없이 들을 수 있는 몸을 가진 자’로 나누었다.<sup>29)</sup>

우리사회가 소통을 이처럼 강조함에도 왜 민주화 이후에 소통이 어려워지고 도

27) 탁석산, *행복스트레스*, 109-111.

28) 이상만, *오이코스 전도이야기*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167.

29) 엄기호, *단속사회*, 174.

리어 소통이 단절되고 ‘불통사회’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오랜 권위주의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가 경험해 온<sup>30)</sup>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이라 할 수 있겠다. 언제나 우리 사회에서는 승자만이 살아남고 패자는 승자의 권위아래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모두가 승자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더욱이 인구에 비해 좁은 땅과 적은 자원을 가지고 무한 경쟁의 분위기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와의 소통에 서툴렀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단절된 관계의 회복이 새로운 전도의 방법에서 고려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 2. 여정의 필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노방전도나 전도 집회를 통해 그 자리에서 단번에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 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의 접촉 내지는 교회 생활의 탐색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훨씬 많다. 미국의 경우에는 70~90퍼센트의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결신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약 300명 정도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조사이긴 하지만 90퍼센트 이상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거쳐 신앙을 가졌다고 합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과정은 이벤트 경험 보다는 서서히 목적지로 나아가는 여행과 같다는 것이다.<sup>31)</sup> 이제까지의 한국교회의 전도방식을 보면 일방적인 복음 선포 방식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면 복음 전파가 잘 안되어 교회성장의 속도가 주춤한 이 시기에는 전도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초대교회의 전도방식에 다시 눈을 돌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들로 이해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거듭난 자’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그 도를 따르는 자들’(People on the Way)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그 도’란 예수그리스도의 길을 말한다(행9:2, 19:8, 23, 22:4, 24:14, 22).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한 번의 결단을 통해 거듭나는 경험으로 증명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며 변화되는 여정이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을 위

30) Ibid., 176.

31) 김선일, *교회를 위한 전도가이드* (성남: 새세대, 2012), 44.

한 신앙 안내서인 <디다케: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에서도 첫머리에서 부터 신앙생활을 '길'이라는 은유로 설명한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인데, 두 길의 차이가 큼니다."<sup>32)</sup> '이로 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신앙 입문과 제자도의 '과정'을 중시하는 여정으로서의 회심을 목표로 두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 더 가까웠으리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이러한 인식 가운데 오늘날, 특히 19, 20세기에 유행했던 인스턴트식 전도와 전도 집회를 위한 자리가 있었을지 의문이다.<sup>33)</sup>

중세의 켈트전도의 여정을 보면 켈트 전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복음화시키는 구조와 순서는 로마 교회의 일반적인 방식과 차별화되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로마 교회의 전도 방식은 (1)복음 제시, (2)그리스도 영접, (3)기독교 공동체로 수용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반면, 켈트 기독교의 전도는 (1)먼저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며 그들을 기독교 공동체로 초대해서 공동체의 삶을 경험케 한다. (2)둘째로, 그러한 교제 가운데서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며 노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인도하면서 복음을 공유한다. (3)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느덧 전도자가 믿는 것을 서서히 자신도 믿게 된다. 그러면 전도자는 그 사람을 믿음으로 초대한다. 사람들은 기독교 메시지의 개념을 이해하고 논리에 설득되어 지적인 동의로 믿음에 이르는 경우보다 먼저, 기독교 신앙이 구현된 삶을 함께 나누면서 경험하다가 어느덧 지적으로 동화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sup>34)</sup>

물론, 사도행전 9장에서의 다메섹도상의 바울과 같이 즉각적인 회심도 있으나 오늘날의 전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여정이 필요하다. 여정전도는 사람들의 삶과 함께 하는 것이다. 오늘날은 기독교 국가시대의 패러다임에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 모으는 전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그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그들의 삶의 영적 동반자가 되어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선교적인 삶으로 전도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루어야 할 때이다. 따라서 한국적 상황에서 새로운 전도방법의 두 번째는 전도할 때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2) 정양모 역, *디다케: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본도출판사, 2006), 17.

33) 김선일, *전도의 유산*, 102.

34) Ibid., 172.

### 3. 가정의 재정립과 공동체성의 회복

앞의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 포스트모던의 도전은 세속주의를 가져왔다. 이러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도래는 한국사회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가정이 사회의 근간으로서 질서와 권위와 전통의 요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적 가치의 해체를 주장한 포스트모더니즘, 즉 탈 근대화 운동은 필연적으로 전통적 가정의 해체 혹은 근본적 수정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가정의 갈등과 이혼의 급증, 가정의 파괴로 인한 자녀들의 탈선, 결혼과 출산 기피, 자유 동거의 확산, 성적 자유와 불륜의 만연, 동성애와 동성가구의 증가 등 가정의 존속 자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sup>35)</sup> 결과적으로, 국민적 합의나 공동체를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가정 붕괴는 국가 정체성 상실에 기여해 왔다. 특히, 자신의 가정에서 안정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연대 의식을 개발하기란 어렵다. 에드워드 비스가 말한 것처럼 “전통적 공동체(가정, 마을, 교회)가 소속감과 영속감을 준 반면, 오늘날 사회의 정황은 일시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 가정의 붕괴 그리고 국민적 합의의 상실과 함께, 우리 문화는 끊임없이 소속할 곳을 찾는 실향민들의 문화가 되어 가고 있다.”<sup>36)</sup>

그동안 한국사회는 전통적 가부장적 문화가 가정의 공동체성을 유지해 왔다면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의 세속주의가 전통적 가부장적 문화를 약화되게 하면서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가정의 공동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유지되었던 전통적 가정의 해체를 초래한 것은 근대 말기에 발생한 두 가지 사회현상 때문이었다. 그 하나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한 도시화(urbanization)현상이다. 가족과 친척이 모여 살았던 고향을 떠나 아무 연고 없는 도시로 이주하면서 사실상 가족과의 단절이 보편화되고 대가족제도 핵가족(nuclear family)으로 대체 되었으며, 대 가족제도의 몰락은 가정의 절대적 권위나 전통의 해체를 결과함으로서 가정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여기에 가세한 것은 성 혁명(Sexual Revolution)이었다.<sup>37)</sup>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오늘날 한국사회에 많은 가정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모던시대의 대가족제도의 몰락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35) 이정석, “문화와 목회” (강의안; Fuller Theological Seminary, Winter 2010), 154.

36) 지미롱, *새로운 청년사역이 되돌아 온다*, 신현기 역 (서울: IVP, 2009), 102.

37) 이정석, “문화와 목회”, 154.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가정이 포스트모던적 상황에서도 모두 복음화되어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가족들의 관계가 그만큼 특별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많은 모임과 기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 둘 뿐이다. 그리고 사실 가정도 하나의 교회로 출발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작은 교회인 가정이 올바르게 서는 것을 통해 우리의 교회가 올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바르게 길러 내는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길러 낸 사람들을 작은 교회인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그 가정이 참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죄와 유혹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을 지키고자 주신 선물이기에 포스트모던 시대에서도 가정의 성경적인 재정립과 공동체성의 회복이 필요하다.

성 혁명 이후 부상하기 시작한 현대적 가정을 최초로 개념화한 애드워드 쇼터는 근대적 가정과 구별되는 세 가지 특징으로 부부관계 불안정성, 이혼률의 급증, 그리고 여성의 자유화로 인한 안식처 개념의 파괴를 들었는데, 그 이후 매우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많은 여성들의 취업으로 자녀가 학교와 탁아소를 전전하면서 학교 교육의 보편화로 부터 발생한 가족 가치관의 절대적 전수체제가 무너지고, 자녀들이 다양한 가치관에 노출되면서 가정의 전통적 기능을 부정하는 포스트모던 아동이 발생하였다.<sup>38)</sup> 이와 같은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 단지 우리사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이다.

이러한 가정의 회복과 공동체성의 회복은 특히 다음 신세대들에게 매우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가 된다. 한국사회의 관계의 단절된 분위기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2030-2040년 사이 한국교회는 유럽의 교회들처럼 약화될 것 이란 전망이 여기저기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주일학교의 다음 세대들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교회들은 나름 데로 해법을 찾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있다. 때문에 다음 절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세대의 특징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교회가 어떻게 새로운 세대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한다.

#### 제 4 절 한국사회 새로운 세대의 특징

38) 이정석, "문화와 목회", 155.

21세기 세계가 직면한 주요한 사회적인 도전들 중의 하나는 여러 세대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sup>39)</sup> 이런 측면에서 한국사회는 모던 시대의 특징을 갖는 세대와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을 갖는 세대들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사회가 근대화해오는 과정에서 두 세대는 세대 간의 갈등과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 오늘날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감소되어 가는 것도 이와 연관된다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신세대의 사람들을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데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사회의 포스트모던세대로 부각된 신세대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경향을 가진다. 그것은 소비주의와 감성주의, 개인주의로 대별될 수 있겠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다음세대의 문화적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 1. 소비주의

새로운 세대의 첫 번째 경향은 신세대의 자본주의 배경과 관련된다. 그들이 태어났고 자랐던 1970년대와 1980년대는 경제 성장을 위한 자본주의 근대화가 절정을 달았던 기간이었다. 그들은 삶의 원칙으로서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하여 양육되었고 자본주의<sup>40)</sup>의 열매로서 자랐던 첫 번째 세대이다.

심각한 가난을 이기기 위하여 필사적이었던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세대와 달리, 이 세대는 가난의 기억이 있지 않다, 만약, 기성세대가 그들의 아이들과 미래를 위해 생존을 위해 돈을 벌었고 구하였다면 새로운 세대에게는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소비를 위해서 돈이 주로 존재한다. 기성세대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지식 없이 돈을 모으기 위하여 벌었던 동안에, 신세대는 모으는 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소비하기 위하여 돈을 번다.<sup>41)</sup> 이러한 신세대의 문화는 다양한 소비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인터넷의 사용과 핸드폰의 사용이다.

39) 함인혜, “세대갈등을 넘어 세대공존을 위해”, *계간사상*, 2000년 12월호, 188.

40) 황동일 외, “新세대, SIN세대, 후세대 그리고 자본주의,” *신세대론: 혼돈과 질서*,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4), 60.

41) Jun Gyu Pak, “A Missional Ecclesiology for the Korean Church in Postmodernity”, Ph.D. di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4, (이하 영문번역은 본 연구자의 해석에 기초함을 밝힘), 94-95.

1990년대부터 의사소통은 급격하게 개발되어왔다. 서구사회에서 시작된 인터넷과 핸드폰은 사람들의 사회적 구조와 생활을 충격적으로 변화시켜왔다. 한계를 초월하여 시간과 장소와 정보는 사회적인 구조를 혼란시켰다. 사람들은 분명히 인터넷과 핸드폰없이 살수 없게 되었다. 한국사회의 대다수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많은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국은 이 시대를 “인터넷과 핸드폰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한국사회에서는 인터넷과 핸드폰문화가 완전한 해방이 아닌 다른 속박의 형태를 가져 왔다.<sup>42)</sup>고 할 수 있다. 확실히 새로운 신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다르다. 한국사회 변천과정에서 경제적 성장으로 먹고 살만한 시대에 자란 그들은 소비가 미덕으로 자라온 것이다.

## 2. 감성주의

새로운 세대의 두 번째 경향은 감성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성세대의 깊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새로운 세대는 즉흥적이고 감성적이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욕망과 자유를 통하여 자기실현과 자기표현의 관심의 폭발적인 증가가 실제로 있었다. 1987년의 사회 정치적인 변천에 관련이 없지는 않으며, 1987년의 민주 혁명은 오래되고 새로운 세대<sup>43)</sup>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

1987년 후에 대학생들 사이에 민주화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의 증가와 같은 거대 담론의 갑작스러운 상실은 독재의 통제의 그림자 아래서 숨겨졌고 잊혀지거나, 압박받았던 작은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이념적인 투쟁은 미학적인 감정으로 대체되었다. 다수의, 대부분의 눈에 잘 띠는 현상은 신체와 성적관심에 활발한 논의들이 나타납니다. 정말로, 1990년대, “대학생들 사이에 가장 인기있는 화제는 성적관심, 성적 정체성, 그리고 다른 성적 주제들이었다”<sup>44)</sup> 성의 관능적이고 대담한 실행은 욕망의 자연스럽고 거짓없는 표현으로서 젊은이 사이에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면, 다른 기성세대와 다르게, 새로운 세대는 결혼 전 성적행위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고, 꺾임 한

42) Han Soo Park, "A Study of Missional Structures for the Korean Church for Its Post-modern Context," 87-88.

43) 미메시스,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3), 141.

44) Lee, So-Hee 'The Concept of Female Sexuality in Korean Popular Culture.' In Under Construction: The Gendering of Modernity, Class, and Consump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Laurel Kendall, ed. (Honolulu: University of Hawai Press 2002), 142.

국의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71퍼센트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절반 이상의 62퍼센트가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게다가, 1998년에 평균적으로 한 쌍에서 200쌍의 커플까지 대학 가까이 근처에 1개의 침실 아파트들에 함께 사는 많은 계약커플 대학생들이 눈에 띄게 증가되어왔다<sup>45)</sup>

이러한 신세대들이 성의 자유로운 표현과 실행은 이전에 살펴본 포스트모던의 도전인 세속주의와 연관되어 무엇이든 잘 먹고 잘살면 된다는 물질만능주의와 결합되면서 신세대들을 더욱 감성주의에 빠져들게 하였다. 또한 신세대의 이러한 성에 대한 관념은 개인주의와 연관된다.

### 3. 개인주의

새로운 세대의 세 번째 경향은 개인주의이다. 그동안 기성세대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은 사라지고 개인주의 성향은 갈수록 더해 간다.

21세기 경제적인 흑자로부터 유래된 생활양식에서 대부분의 크나큰 현상중의 하나는 한국의 개인주의 출현이다. 개인주의는 한국의 대부분의 전통적인 가치인 집단주의를 파괴했다. 인터넷과 핸드폰문화는 과거나 과거의 전통적이고 강제적인 구속에 비교하여 개인적인 관계의 기능들을 덜 제공한다.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이익이 일어남으로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장소와 세계를 모던상황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주의의 부정적인 영역은 자신의 주요 관심이 자신의 흥미에 연관되어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를 알지 못한다. “우리”라는 개념은 모던시대에 중심이었던 점차적으로 “나”라는 개념으로 변화되었다. “우리”는 “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말이다.<sup>46)</sup>

이제 우리 사회는 “우리”라는 의식이 점차 사라지며 개인주의가 더해 갈수록 이 혼율은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개인주의는 높은 자살률도 가져왔으며 이제 한국사회는 사회적 결속이 필요하다. 교회는 이러한 단절된 한국사회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결속할 수 있어야 하겠다.

45) “신세대 대학생 동기족, 원룸 얻어 함께 살아,” 동아일보, 1998, 9, 21, 19.

46) Han Soo Park, “A Study of Missional Structures for the Korean Church for Its Postmodern Context.”, 2008, 89.

이러한 신세대 문화의 특징은 개성, 자유, 개인주의, 감각, 쾌락주의 등의 개념으로 표현되며 기성사회가 지니고 있었던 획일성, 위계질서, 논리성, 집단주의에 대한 반발이며 저항으로 해석된다.<sup>47)</sup> 이러한 신세대 문화는 모던시대의 질서를 거부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갈망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양한 문화가 나오고 개성을 존중하며 전통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무시하는 문화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sup>48)</sup> 때문에 이러한 그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기성세대의 소비형태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 등장한 신세대는 가치와 의식구조가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세대 간의 대립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서로 의견과 시각이 맞지 않고 전혀 다른 사고와 인식의 차이가 빚어지면서 포기하고 물러나는 층이 신세대이다. 왜냐하면 자기 취향에 맞지 않으면 조금도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대 간의 대립과 마찰은 사회보다 먼저 각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은 대화 단절에서 비롯되는데 대화단절의 원인이 바로 세대 간의 사고와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단절이다.<sup>49)</sup>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한 가정 안에서 가족구성원들은 각자 따로 생각하고, 다르게 생활하고 각 방을 쓰면서 각각 다른 세계에서 산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기성사회를 거부하는 것보다 전통적 가부장제에 대한 거부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원하는 신세대의 우리 사회에 대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sup>50)</sup>

따라서 새로운 세대의 이기주의적 개인주의는 배격해야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적 경향을 잘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세대에 대한 포용과 이해가 필요하리라 본다.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한국적 상황과 새로운 전도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적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한국사회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과 한국적 상황에서 새로운 전도의 방법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새로운 세대의 특징

47)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8). 182.

48) 신국원, *문화이야기*, 34.

49) N. Negroponte, *디지털이다*, 백옥인 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7.

50) 이동연, *대중문화연구와 문화비평* (서울: 문화와 과학사, 2002). 278.

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새로운 전도로서의 동반자전도의 원리와 필요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 제 3 장

### 동반자전도의 원리와 필요

본 장에서는 동반자전도의 원리와 필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동반자전도의 개념과 원리와 배경을 살펴보고, 이어 동반자전도의 신학적 근거를 찾아보며, 그리고 동반자전도의 성경적 근거와 동반자전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 제 1 절 동반자전도 원리

##### 1. 동반자전도 개념

이제까지 한국 교회에서 행해왔던 기존의 전도들(예를 들면 집회전도, 노방전도, 축호전도)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결신을 요구한다거나, 인격적 교류 없이 대면해서 영혼 구원하는 법을 선포하고 영접을 요청하는 식의 전도들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변모되면서 오늘날 이질적이고 서로가 낯설어진 사회에서 기존의 전도법들은 적절한 복음적 의사소통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더 인격적이고 삶을 함께 나누는 여정 안에서의 동반자 전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동반자 전도는 관계와 양육과 여정에 기초하여 만들어 졌는데, 그 시작은 1995년에 영국 국교회 주교단은 ‘길 위에서’(On the Way)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으로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는 ‘기독교 신앙입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에 관심을 기울이며 관련된 쟁점들을 성찰하고 교회의 선교 영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sup>51)</sup>

51). 성서유니온선교회, *앰마우스 소개서: 믿음의 길*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미간행물), 21.

그에 대한 결과물로 *엠마우스 믿음의 길*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문자 그대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상(途上)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체험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제 1단계는 접촉단계이고 접촉을 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관한 책자로 구성되어 있다. 제 2단계는 양육단계로서 15과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제 3단계는 성장단계로서 지속적인 성장과 제자도에 관한 15개의 짧은 코스로 되어 있다. 예수님을 복음 전파의 양육과 제자도를 위한 모델로 이해한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은 곧 관계를 맺는 것이고 관계를 맺고 구원 이후에 양육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또한 제자도에 이르는 길과 여정(旅程)이라는 이해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있다.

마치 엠마오도상의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질문과 필요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교회 예배나 모임 장소에 단순히 앉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관심을 바깥으로 돌려야 한다. 즉,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회중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울타리 밖으로 과감히 넘어서서 주변의 공동 사회를 섬겨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는 규범이다.<sup>52)</sup> 때문에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리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동반자가 되어 관계를 맺으면서 후에는 동반자전도는 양육그룹에 초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영적 여정의 동반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후견인(sponser)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후견인의 역할은 양육과정을 시작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과 동행하는 일이다. 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후견인이 양육 단계의 교육 시간에 예비신자와 같이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룹은 헌신적인 성도들과 새로운 예비신자들로 구성된다. 물론 꼭 이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후견인은 직접 그룹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백그라운드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하든지 ‘동반자와 함께하는 여정’이 엠마우스의 모델이다. 후견인의 주된 역할은 예비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 예비신자가 교회에 오려고 할 때 접촉점이 되는 일이다. 신앙을 찾으려는 사람이 자주

52) 성서유니온 선교회, *엠마우스 소개서: 믿음의 길*, 7.



발견하는 사실은 교회에서 아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고, 또한 양육 과정에서 대하는 다른 사람이 복사뿐이라면, 소속감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소속감을 느끼고, 귀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된다면, 그들이 신앙을 갖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을 붙잡아 두기는 힘들 것이다.<sup>53)</sup>

그러나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후견인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는 아니다. 오히려 친구나 동반자라는 단어가 더 자연스럽고 친숙하다. 우리나라 말에서 가장 비슷한 의미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반자(companion)이다. 따라서 “동반자 전도”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비신자의 동반자가 되어주어 전도하는 방식이다.

동반자전도는 이처럼 같은 관계의 모습뿐만 아니라 양육 그룹과 함께 시작되었다. 처음 양육 그룹이 시작된 곳은 영국에서의 일이다. 1980년대 빌리 그레함을 위시해서 대규모의 전도 집회나 행사가 얼마나 효과적인 전도방법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 다르다. 오히려 오늘날은 양육 그룹이 늘어나는 현상이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영국에서 시작된 양육 그룹이 큰 흐름을 형성했다. 그것은 이제 전 세계적 현상이며 수많은 요란한 운동들보다 전도면에서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분명히 주장할 수 있다.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노팅엄 세인트 마가렛교회가 만든 것으로, 1970년대 다양한 교구 그룹이 이를 반복해서 운영했다. 1983년 영국 성공회 갱신 사역 Anglican Renewal Ministries은 이를 각색해 *성도여 깨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 저예산으로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5만 명 이상이 이용했다. 거의 비슷한 때에 마이클 우더슨의 *거리의 복음(Good News down your Street)*이 출간되어 널리 사용되었다. 영국 성공회 주교단은 그리스도교 입문이라는 주제 전체에 대한 연구를 했으며 그 결과, 영향력 있는 보고서인 *도상에서(on the way)*가 1995년 출간되었다.<sup>54)</sup>

그런데 이러한 영국에서 시작된 양육그룹은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들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았던 것을 물으면 단연 함께 있는 것이라고 대답한다.<sup>55)</sup>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사회 새로운 세대의 특징은 포스트

53) 성서유니온 선교회, *웬마우스 소개서: 믿음의 길*, 1.

54) John Finney. *새로운 전도가 온다*, 한화룡 역 (서울: 비아, 2014). 125-130요약인용.

모던 시대의 문화인 소비주의, 감성주의, 개인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오늘날 사람들은 함께 체험하며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반자전도의 이러한 양육그룹이 여러 시간 동안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여정을 통해서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여정을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는 산파(조산원)의 모습에 비유한다. 바울은 갈라디아인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갈4:19).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이러한 그림을 사용하여 자신을 해산의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표현하였으며 갈라디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로 그렸다. 다른 사람 옆에서 신앙을 탐구하고 발견하며 일을 하는 것은 마치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주려고 산파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사명은 그곳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돕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 도상에서 얼마나 부드럽게, 명확하게, 그리고 능숙하게 제자들을 대하셨던가?<sup>56)</sup>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과정은 영적 동반자가 옆에 함께 있는 여정일 때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동반자전도의 개념은 관계를 기초로 하여 함께 하는 영적동반자가 되어 여정을 중시하여 전도 이후에 양육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 2. 동반자전도의 원리

동반자전도의 원리는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기초한다.

초대교회는 이교도들을 직접적으로 전도하라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한 행실과 단정함으로 영향을 주는 삶을, 더욱 장려했다고 볼 수 있다.<sup>57)</sup> 이 시점에서 초대교회의 첫 열매 전도는 급진적으로 회복해야 할 모본이 될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받아내고 거듭난 자라고 스스로 위안 삼는 이들을 양산하는 피상적인 대중 집회 사역에 주력하기 보다는, 신앙을 실제 생활과 가치관에서 적용하기 위해 고민하고 갈등하는 여정이 함께 있는 전도사역으로 바뀌어야 한다. 단기간 안에 이것이 가능하지는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55) Ibid., 138.

56) 성서유니온 선교회, *엠마우스 소개서: 믿음의 길*, 23.

57) 김선일. *전도의 유산*, 100.

그의 제자 된 삶을 요구하기 때문이다.<sup>58)</sup>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여정이 없이 일회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경향에 치우쳐 왔다. 이제는 과정과 여정을 중요시하는 전도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세상 속에서 선교적 공동체를 살 고자한다면 우리 이웃들의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 살아갈 때 여정 속에서 동반자 전도가 이뤄질 것이다.

이러한 여정 전도 모델은 신앙과 삶을 연결해주며 깊은 내면적 필요를 이끌어 주는 전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번의 결신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여정에 참여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그러나 온전하게 기독교에 동화되는 신앙의 형성 (faith formation)이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 신앙 형성은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다른 이들과 더불어 나누며 서로 지원하고 협력할 때 일어난다. 이와 같은 함께 하는 여정으로서의 전도는 인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배려와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아래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sup>59)</sup>

요즘 가톨릭의 피정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05년 영국 BBC방송국에서는 종교가 없는 사람 5명을 실제 수도원 생활체험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이 방송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두가 이러한 수도원생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의미있는 종교적 체험을 함으로써 그 가운데에 어떤 한 사람은 자신의 진로까지 바꾸어 사제의 길로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원래는 포르노 채팅사이트 운영자였는데 직업을 바꾸어 신앙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현대인들에게는 체험과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동반자전도는 이러한 여정의 필요뿐만 아니라 오늘날 계층 간, 세대 간, 이웃 간의 단절된 한국적상황에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동안 구원에 치중했던 우리의 교회교육에 이제는 구원이후 효과적인 양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하다.

### 3. 동반자전도의 배경

동반자전도의 배경이 된 엠마우스는 예비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했던 기독교역사에서 얻어진 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오늘날 교회 상황이 초대교회

58) Ibid., 136-137.

59) Ibid., 283-284.

시대와 비슷하다. 그들의 상황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의 상황 또한 급박한 상황이다. 신앙적인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직면해 있다. 믿음에 대한 쇠퇴와 함께 삶의 의미의 추구하고 갈망 등 영적인 갈급함에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의미를 찾고 삶에서 행복과 의미를 찾는 것은 동일하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추구가 일시적인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이러한 의미를 찾아가는 영적인 여행과도 같은 것이다. 때문에 신앙을 여정으로 보는 것은 새로운 통찰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시대에서부터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기독교는 인생에 있어서의 길 및 생활방식과 같은 ‘길’(The Way)이라고 불렸기 때문이다.<sup>60)</sup> 사도행전 9장 2절에서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을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소개한다. 여기서 나온 “길도 구원을 찾아가는 영적 여정으로서의 순례의 길이다”라는 뜻이다. 이와같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도착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순례를 향하여 길을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와 같이 이 여정이라는 의미는 근본적으로 초기 3세기 동안 교회가 개발한 기독교 교리교육(catechumenate)이라는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교리교육은 흔히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게 하기 위한 3년 과정으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전 생애를 통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어느 때에는 값비싼 희생을 치르게 되리라는 함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엠마우스 프로그램의 몇몇 필자들은 초대 교회가 신자들을 신앙으로 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숙한 제자도, 즉 어떤 이에게는 용감한 순교에 이르는 길까지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을 연구하게 되었다.<sup>61)</sup> 이와 같은 기독교 초기 초대교회의 기독교 교리교육이 3년이라는 긴 여정을 통해서 예비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점을 착안하여 동반자전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에서 엠마우스를 만들게 된 것이다.

본 절에서는 “동반자전도의 개념은 관계와 양육과 여정이다”는 것과 이러한 동반자전도의 원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동반

60) 성서유니온선교회, *엠마우스 소개서 믿음의 길*, 20.

61) Ibid., 20.

자전도의 배경은 영국의 엠마우스에서 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동반자전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반자전도의 신학적 근거를 알아보려고 한다.

## 제 2 절 동반자전도의 신학적 근거

### 1. 예수님의 동반자전도

동반자전도의 신학적인 분석을 하고자 할 때 로버트 쿨만의 전도의 원리에 보면, 8가지 전도의 원리 중 두 번째 원리인 동행전도 원리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로버트 쿨만은 본 연구자가 사용한 동반자전도의 “동반자”란 의미의 가장 동일한 의미의 “동행”이란 말을 사용한 학자이기 때문이다.

동행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Association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결국 핵심적인 의미는 영어의 With와 같은 뜻으로 “함께”라는 말이다.<sup>62)</sup> 이와 같은 동행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그의 열두 제자들에게 전도하고 함께 하면서 양육했던 의미로 사용한다. 이러한 로버트 쿨만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과 함께 했던 동행 전도 원리의 신학적인 연구 작업을 한 김남식은 그의 책 *예수님의 전도원리 동행 전도학* 에서 예수님의 동행전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첫째, 예수님의 동행 전도는 유대나 헬라 시대의 사제 간의 관계와는 달리 사제 간의 ‘지속성’이 있다는 점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속성은 죽음을 넘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이어졌다. 둘째, 유대와 헬라시대의 전통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열두 제자와의 동행을 통해서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며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다.<sup>63)</sup>

헬라어에서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는 훈련생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스승과 함께 함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러나 스승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적인 의미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었다. 스승과

62) 김남식, *예수님의 전도원리 동행전도학* (인천: 한국전도학연구소, 2015). 서론요약인용.

63) Ibid., 199.

함께 함이 때로는 상업적 관계나 인간적인 교제 중심일 수가 있었다. 예를 들어 프로타고라스는 스승과 제자 사이를 이해할 때 일정의 수업료를 받음으로써 제자들과 상업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소크라테스의 경우는 지식 전달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식보다는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었다.<sup>64)</sup> 이처럼 헬라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함께 함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함께 함의 의미는 헬라의 스승과 제자의 함께함의 의미보다는 더 깊은 의미를 가졌다. 마가가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기록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먼저 제자를 선택하고 함께 있게 하셨다고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심은 전도에 있어서 함께 하는 동행의 의미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공동생활을 통하여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모범을 직접 보여주셨다. 성경을 사용하는 법과 기도하는 모본과 전도하는 모범을 보여 주시면서 전도 훈련을 하시고 전도하게 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전도의 방식이 지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반자전도의 지속성을 김선일은 그의 책 “교회를 위한 전도가이드”에서 동반자전도의 지속성의 같은 뜻의 여정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제시한다.

여정전도라는 개념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누구나 돌아가야 할 인생의 종착지가 있다.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예수그리스도와 만나야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으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야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며 영적인 순례자이다. 때문에 전도란 생명의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참된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sup>65)</sup>이라 한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이 나온다. 그들 모두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걸었으며 우리 또한 영적인 순례자로서 살아간다.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는 불신자들에

64) Rengstorf, Karl. *μαθηται* in Freidderich Gerhard Kittel ed, Geoffrey W. Bromily, trans. *Theology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IV.* (Grand Rapids, MI: W m B. Eerdmans Publishing, 1977), 419.

65) 김선일, *교회를 위한 전도가이드*, 45요약.

개도 영적인 순례자와 같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함께 하심이 우리도 불신자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동행함의 본질과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예수님의 동반자전도의 본질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나중엔 전도하는 사명을 주셨다.(마 28:19-20)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함의 방식은 당시 헬라와 유대의 스승과 제자들과의 상업적인 관계와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생업을 포기하면서 헌신하는 제자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이러한 동반자전도의 본질과 그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김남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4:8).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데 아가페란 뜻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킨다. 그러나 하나님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 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한 것처럼(요15:12-13) 조건적인 사랑도 있다. 또한 하나님과의 모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친구의 우정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형태와 상관없이 성결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레19:2, 수24:19)<sup>66)</sup>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삼위 하나님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기 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부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두 제자와 함께 하심 예수님의 동행의 근원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사랑이 있다. 따라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동행전도는 열두 제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다.<sup>67)</sup>

66) 김남식, *예수님의 전도원리 동행전도학*. 43-48요약.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소개되어진다.(마1:23)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은 그의 백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이러한 임마누엘 예수님은 그의 열두 제자를 선택하고 훈련하여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파송하셨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절정의 표현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 십자가 이후에도 부활과 성령을 통하여 그의 백성과 동행하시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향한 동행전도는 열두 제자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셨다. 이러한 신학적인 근거가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 “왜 함께 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아울러 이번에는 동반자전도의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제 3 절 동반자전도의 성경적 근거

#### 1. 예수님의 모델

“동반자전도”라 함은 전도 대상자를 친구와 같이 여겨 전도하는 방식인 것이다. 누가복음24장에 나오는 엠마오도상의 에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걷던 제자들에게 무작정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었다. 그들과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었다.<sup>68)</sup> 오늘날은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섬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예수님도 누가복음24장 본문을 보면 부활주일 오후 늦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 예수님의 영적여행의 동반자로서 한 사람은 글로바이며 다른 한 사람은 확실하지 않지만 다른 한 사람이다. 예루살렘에서 7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엠마오란 곳으로 가고 있었다. 왜 그들의 마음과 상태는 아주 많이 슬펐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제까지 그들이 가졌던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무덤에 있었던 예수님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슬픔에 잠겨있던 그들에게 왜 낯선 남자가 찾아 와서 그들의 슬픈 이유를 물었다. 그들은 그가 예수인줄 알아보지 못하고서 예루살렘에서 살아왔다면 우리가 슬픈 이유를 정말 모르냐고 되물었다. 예수는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그들이 기대했던 잘 알지 못했던 이유와 그들의 질문에 답변해 준다. 그리고 그들의 슬퍼했던 그 이유를 들어주며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예수님의

67) Ibid., 57.

68) 성서유니온선교회, *엠마우스 믿음의 길*, 12.



죽음과 부활이 왜 필요했던가를 자세하고 비교적 그들의 상태와 감정을 고려하면서 말이다. 이 짧은 예기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좋은 점을 시사해 준다. 예수님은 슬픈 감정에 처한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며 채워 주었다. 따라서 전도는 일회적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속에서 친구나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주어야 한다. 기독교의 복음 선포는 그동안 삶의 과정을 중시하지 않았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권위적인 인물(목사, 교수, 선생)의 가르침보다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의 주변부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인다고 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만난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sup>69)</sup> 권위적 가르침보다는 우리 주변의 삶의 에기를 통해서 포스트모던시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부두와 해변을 거닐며 사람들의 삶의 주변으로 가셨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삶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뒤로 물러서는 반사적인 반응이 아니라,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의도적인 하나님 나라의 걸음이 필요하다.<sup>70)</sup>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보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 서로가 관계를 맺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전도방식도 한 마디로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는 동반자 전도방식이었던 것이다.

#### 가. 관계적 차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에서 예수님도 삭개오의 처지와 고통에 대한 공감으로 그를 만나주신 것을 본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안식일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 치유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이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따르기 시작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당시 고칠 수 없었던 나병환자도 고치셨다. 이런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의 여리고라는 성으로 들어가시게 된다. 그런데 그곳에서 삭개오라는 세리장이요 부자가 살았다.

그는 세금 징수원이요, 더군다나 세리 장이었다. 당시 그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

69) Ibid., 46.

70) Don Everts and Doug Schaupp, *포스트모던보이 교회로 돌아오다*, 장혜영 역 (서울: 포이에마, 2008), 57-58.

는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이유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압제자 로마 점령군을 위해 일했기 때문이다. 이런 세금 징수원들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아서 자신들의 봉급까지 포함해 충분히 세금을 거두어야만 했다. 여리고 전 지역의 세관장이었던 삭개오는 그의 직업으로 아마 큰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삭개오와 같은 세리 장들은 분명 부하 직원들이나 또는 세금 징수원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요구했을 것이고 그는 엄청난 부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줄 지위와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다.<sup>71)</sup>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겉으로는 굽신거릴줄 몰라도 마음으로는 삭개오와 같은 부자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7절에 “뭇사람들은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고 비방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삭개오는 자기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그에게 아마 예수님은 이미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서 따른다는 소문은 그로 하여금 많은 호기심을 갖게 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상황은 삭개오를 만나출만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사람이 많이 몰렸고 더군다나 삭개오는 어른이지만 키가 작았던 것 같다. 얼마나 예수님을 한 번 보고 싶었는지 삭개오는 세리 장으로서 체면도 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돌 무화과나무는 중심나무에 나뭇가지가 수평으로 뻗어있어 아마 올라가서 나무에 매달리면 예수님을 보기가 쉬웠으리라 본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아신 듯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하신다. 삭개오는 얼마나 반가웠던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자기 집에 머무를 것을 받아들였다.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그가 물질적으로는 부유해도 얼마나 외롭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 같다.

우리 주변에 삭개오와 같은 외로운 마음 아무도 자기를 공감해 주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영적으로 채워지지 영적인 외로움과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강권하여 청하여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는 적극성

71) Jerram Barrs, *전도, 예수님께 배우다*, 이성우 김영미 공역 (서울: SFC, 2010). 126.

을 가지고 우리 이웃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이웃은 그들은 먼저 교회나 믿는 자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사실 가장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렇다. 먼저, 교회가 믿는 자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가가야 한다.

#### 나. 사회문화적 차원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본문에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나온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4절에 이 여자가 간음했다는 표현을 보면 상대했던 남자가 유부남이었던지 아니면 이 여인이 유부녀였던 것 같다.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 남자가 유부남인지 여자가 유부녀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이들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인 관계가 서로가 은밀히 죄를 짓다가 그만 발각이 되어 버렸을 것이다. 아마 두 사람은 자신들의 행동을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초조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죄를 지었을 것이다. 너무나도 짜릿하고 황홀했기 때문일 것이다. 죄란 항상 지을 때는 짜릿하고 인간을 황홀하게 만든다.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남의 눈에 들키고 말았다. 그것도 가장 당시에 도덕적이고 법의 잣대를 엄격히 지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남자보다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예수님의 반응을 살핀다.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을 일으킬만한 남자보다는 어찌 보면 피해자일수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을까? 그들이 예수님께로 데려간 이유는 예수님을 곤경에 넣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상태여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곤경에 빠트릴 기회만 찾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에는 먼저 한 가지는 율법이 요구하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레위기 2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라고 나왔기에 이제 예수님은 반드시 이 여인을 죽여야만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죽이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될까? 아니었다. 당시 로마당국은 사형을 집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다른 누구도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는 상태였다. 성전을 더럽히거나 모독하는 죄가 아니면 유대인들은 식민지하에 있었기에 자기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형에 집행하는 일에 동의하고 동참한다면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당국에 아마 고발할 것이기에 예수님은 어려운 곤경에서 과연 어떠한 조치를 카드를 내놓을 것인가? 예수님은 바로 몸을 굽혀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쓰셨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이 여인만 남게 되었다. 여기서 “죄없는 자: 아나마르 테토스”는 원어로 “엄마 뱃속에서 지금까지 죄가 한 번도 없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를 따졌을 때 죄짓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느껴 모두들 다 도망가 버린 것이다.

오늘 이 문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가? 물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심으로써 그 여인은 용서 받고 예수님의 자비에 구원받았을 것이다. 당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간음한 여인을 죽였던 율법에 따라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문화를 이용하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베푸는 “자비와 사랑의 본질은 모든 죄에서 대해서 무조건 용서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는 것이다.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심판하시고 공의를 베푸신다는 것이다. 약자나 억울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기에 사랑과 자비의 대상으로 대하라는 것이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받아 감동하게 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나 나누는 자들이 되라는 메시지일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 동반자가 되어 우리 이웃을 전도하려 할 때 우리 이웃들의 죄를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당시의 사회문화를 이용하여서 영적 동반자가 되셨다.

#### 다. 영적 차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본문에서 니고테모라는 바리새인 중의 한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온 사건이 발생한다. 사람들 중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세가 있으면 교만하기가 쉬워서 고귀하다고 불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니고테모가 권세가 있으면서도 고귀한 사람이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으며 바리새인이요, 학자였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의 한 사람이었다. 당시에는 자신들의 유대주의적 혈통의식 때문에 종교적 지식(율법)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좋지 않은 풍조가 있었으며 어떤 관원들은 그러한 풍조에 쉽게 휩싸였다. 그러나 니고테모는 밤에 예수께 온 것을 보니 니고테모는 예수의 대중적인 공개 강연을 듣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았던 것 같다. 니고테모는 그가 예수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혼자서 그리스도와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겠다고 결심하였던 것 같다.

니고테모가 예수님께 와서 처음 한 말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니고테모가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 이다. 여기서 표적은 2장에서 나온 예수님이 공적 사역에서 처음으로 첫 표적을 베풀었던 가나의 혼인 잔치때 표적을 얘기한다. 여기 이 니고테모라는 사람은 사려 깊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탐구심이 강한 사람으로서 예수께서 가르치심 교훈과 이때 행하신 이적을 조사해 볼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 이적들이 진정한 이적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납득하였고 그 이적에 깊은 감명을 받음으로써 그가 속한 계급의 사람들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과 사회지도층의 대세와는 반대 방향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니고테모의 이런 말에 예수님은 3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다. 아마 니고테모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자신들이 유대 주의적 혈통과 종교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더욱이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공회원이었을 정도의 사람은 그들 중의 덕망과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테모에게 거듭나라고 하자 니고테모는 예수님의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질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 자신의 나

이가 중년 들어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판국에 거듭나라는 말<그럼 나보고 이제 와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라는 뜻의 의미로 추정됨>을 이렇게 제차 물으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신다.

예수님은 “니고테모에게 종교적 지식과 유대 주의적 신민의식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충분한 기초가 아니”라고 설명하신다.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야만 하는 것이다. 당시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이방인의 부정함을 제거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고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가 된다”는 의미의 말을 하셨다. 따라서 ‘물로 난다’는 말은 단지 회심만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니고테모에게 ‘위로부터 난다’는 것이 두 번째 육체의 탄생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밝혀 준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헬라어 표현은 ‘물과 성령’을 의미 할 수도 있고 ‘물, 즉 성령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으나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본문에서 “맑은 물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그들의 육신 가운데 옛 속성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율례를 말씀에 지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회심하는 것(참고 요7:37-39성령세례)을 의미할 수 있다. ‘유대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유대교로 개종하면 옛 관계들에서 법적으로 단절 되었다는 의미에서 새로 태어났다’고 말한 반면, 실제로 성령에 의해 중생해야 새로운 마음이 생길 것이다.(겔36:26). 중생은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우리의 믿음 또한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니고테모에게 영적으로 거듭날 것에 대해 말씀하시며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주신다.

## 2. 마태의 모델

성경에서 또 다른 모델이 마태의 모델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도 저희와 같이 그의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본다.<sup>72)</sup> 마태는 간선 도로를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룻을 위해 세금을 거두려고 세관에 앉아 있었다. 모든 “세리

72) 마태복음 9장9절-17절, 마가복음 2장13-17절, 누가복음 5장27절-32절에 보면 레위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자기의 옛 친구들을 초청한 이야기의 내용이 나온다.

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매년 상당한 돈을 받아 필시 부유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그의 동료 세리들은 외국인과 협력하거나 멸시당하는 헤롯의 고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경멸당하고 인간쓰레기와 같이 형편없는 죄인 취급을 받았다.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에 대해 상당히 많은 것을 듣고 보면서 의심하지 않았고, 특별히 그에게 끌리는 매력까지 느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를 때까지 무르익은 것을 아셨다. 그래서 그의 곁으로 지나가시면서 제자로서 자기를 따르라고 명령하셨다.

누가복음 5장 28, 29절에 보면, 레위는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를 따랐다. 그는 그의 동료 세리들과 자기가 아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그의 제자가 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주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그 잔치에 초대하였다.

한때는 세리로서 사람들로부터 죄인취급을 받아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옛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사람들을 초청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세리 같은 자도 예수님의 소문에 그를 만나고 싶었다는 사실과 세리와 같은 자도 자신이 변화되니까 남을 초청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관계의 중요성과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기쁨으로 자원하여 섬길 수가 있음을 보게 된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야 한다. 아직은 교회 성도들이 마태 세리와 같이 남을 초청한 만한 일꾼들로서는 부족할지라도 손 대접과 삶을 통한 이야기나누기 전도방식은 동반자 전도를 위한 효과적인 방편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반자 관계전도의 한계는 신자와 불신자의 우정이 깊어질수록 진짜 전도는 간과한 채, 관계의 강조점이 참된 우정으로 흘러가기 쉽다는 것이다. 관계 전도(생활 전도, 우정 전도쯤으로 부를 수도 있는)의 약점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통한 영혼구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sup>73)</sup> 마태의 모델은 교회성도들이 동반자 관계전도를 하고자 할 때 좋은 모델이 된다.

73) Christine Wood,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임혜진 역 (서울: IVP, 2005), 110.

## 제 4 절 동반자전도의 필요

### 1. 교회 성장의 한계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교회는 전도가 잘 안 되어 많은 대안들이 나왔으나 뚜렷한 성과와 열매들이 부족했다고 밝혔으며 또한 한국교회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 성장 발전 대안으로 새로운 전도의 변화가 필요 하는 것도 이미 언급하였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러한 기존의 분위기 속에서는 교회 성장의 한계가 있다.

2005년 통계청 조사에서 개신교는 3대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신도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 즉 1995 - 2005년 사이 종교 인구는 50.7퍼센트에서 53.19로 2.4퍼센트 증가 하였고, 절대 인구로 237만 명이 증가하였다. 천주교는 절대 인구로 295만 명에서 514만여 명으로 219만 5천 명이 증가하여 74.4퍼센트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이룩하였고, 불교 역시 이 기간 40만 5천 명이 증가하여 적지만 성장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개신교만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것이다.<sup>74)</sup>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도 시대에 따라 여러 종교들이 부침을 거듭했다. 다행히 한국 교회는 선교 120여년의 역사 동안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왔다. 특히, 산업화 시기인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수직적인 성장을 이어 왔고, 1978년, 79년, 80년에는 매년 100만 명씩 성장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현재 개신교인이 861만 명이라는 사실을 보면 그 성장은 기적이라는 표현 외에는 달리 설명한 방법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 시기에 다른 종교들의 성장과 비교해 볼 때, 한국 개신교가 확연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는다면 개신 교회는 다른 종교들과 달리 그 시대에 맞는 방법과 메시지를 통하여 그 시대의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75)</sup>

그러나 현재 한국 교회가 침체의 국면을 맞이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한국 교회가 어떠한 복음의 틀을 만들어 가야할지에 대한 방향이 만들어 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시대는 변화였는데 아직 한국 교회는 이 사회와 소통의 과정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이

74) 조성돈, 정재영, 그들은 왜 카톨릭교회로 갔을까? (서울: 에영커뮤니케이션, 2007). 56-57.

75) 조성돈, "목회폐러다임 60년의 간격과 미래," 목회와 신학 2005년 8월호.



다.<sup>76)</sup>

본 연구자는 이러한 위기의 대안으로 선교적 교회론을 제시하여 전도사역에 참여하는 이들은 전도대상자에 대하여 자신들이 영적 여정의 동반자라는 새로운 태도로 임하여 삶속에서 이웃의 필요를 채우며 섬기는 전도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갈수록 교회를 멀리하는 포스트모던 세대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 영적 동반자로서 세상의 이웃에 친구가 되어줄 것 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교적 교회와 동반자전도의 연관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 2. 선교적 교회와 동반자전도

5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서구 유럽의 기독교는 많은 성장을 했고 10세기에서 20세기말까지 11세기 동안 기독교는 유럽사회를 지배했다. 그러나 20세기말에 들어서 오늘날 사람들이 찾는 것은 기독교가 더 이상 이전의 기독교 국가 시대처럼 사회의 중심 지배세력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더욱이 포스트모던 문화와 함께 종교다원주의 상황에서 이제 기독교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환영받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와 있다. 동네에 세탁소나 커피전문점이 들어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환영할지 몰라도 교회가 들어오는 것은 반갑지 않은 게 현실이다.

21세기는 포스트모던시대다. 따라서 기독교국가 중심시대에서 기독교가 시대의 중심 세력을 형성하는 때가 아니다. 다양한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기독교가 선교적이기 위해서는 최근에 선교적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복음과 문화 네트워크(The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단체는 이렇게 말한다. 선교적 교회는 그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문화적 상황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가"라고 자문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상황에 맞게 자신의 모습을 갖추기에, 문화적 상황은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 그 정의상, 선교적 교회는 항상 외부 지향적으로 보이며 항상 변화하며 (문화가 끊임없이 변화하듯)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다.<sup>77)</sup>

문화적 상황속에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잘 정리한 마

76) 조성돈, 정재영, 그들은 왜 카톨릭교회로 갔을까?, 61.

77) Michael Frost and Alan Hirsch, 새로운 교회가 온다, 지성근 역 (서울: IVP, 2009). 25

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는 그의 책 “새로운 교회가 온다”에서 다음과 같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잘 요약하고 있다. 교회론의 측면에서 선교적 교회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 하지 않고 성육신적(incarnational)이고자 한다, 성육신적이라 함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만나려면 반드시 와야 하는 거룩한 장소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다. 오히려 선교적 교회는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사회의 틈과 갈라진 곳에 스며든다.<sup>78)</sup> 이와 같이 선교적 교회는 자기가 속한 문화의 리듬과 삶으로 들어가 일하는 것이다.

때문에 선교적 교회의 교회론은 전도에 있어서 동반자 전도 원리와 같은 것이다. 동반자전도의 개념은 관계와 여정이다. 단절된 사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 대로 동네 사거리에 사람들의 삶에다가 가서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곧 성육신적인 선교적 교회의 교회론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영적 순례자, 동반자가 되어줄 때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다.

### 3. 한국적 상황에서 새로운 동반자 전도의 필요

21세기 문화와 전도는 전도하는 방법의 변화도 가져 오게 한다. 전도 대상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도자의 입장에서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공법 전도에서 탈피해, 말씀이 육화된 성숙한 인격과 삶 그리고 지속적인 신뢰 관계와 매력 창출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관계 전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길 원한다. 그렇다면 ‘복음 보여주기’ 전도 문화가 일어나야 한다.<sup>79)</sup>

이제까지 한국적 전도방식이었던 전도방식이 일방적 복음선포적 전도방식이었다면 본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전도방식은 쌍방향 관계적 동반자 전도방식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과 그들의 필요를 연구함은 좋은 접착점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오늘날 한국적 상황에 동반자전도가 효과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 절의 ‘동반자전도의 성경적 근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은 권위적인 인물의 가르침보다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의 주변부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인다고 한다. 때문에 일방적 복음선포나 전도방식보다는

78) Michael Frost and Alan Hirasch, *새로운 교회가 온다*, 33.

79) 이상만, *오이코스 전도이야기*, 47.

쌍방향적 관계적 전도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한국사회 전도대상의 주된 타겟 계층이라 할 수 있는 20대에서 30대까지 넓게는 40대들의 필요에 민감하여 한국 교회가 이들 신세대의 필요를 섬기면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집축점으로 활용하였으면 한다. 세대별, 특성별 문화적인 접근 방법은 비기독교 인이 교회로 한걸음 나아오는 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 물론 문화적인 요소가 절대적이지는 않다. 이것은 더 효과적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 다가가는 훌륭한 도구이자 다리와 같다. 확일적으로 다가서기보다 세대별, 개인적 특성별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면의 문제별로 지혜롭게 다가설 필요가 있겠다.<sup>80)</sup> 이와 같이 쌍방향 관계적 동반자 전도방식으로 전도대상자에게 다가가면 처음부터 오는 거리감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고 단절된 한국사회에서 좋은 전도방식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오늘날 한국적 상황에 동반자전도가 필요한 이유는 단회적인 기존의 선포적 전도방식보다는 여정을 중요시한 동반자전도 방식이 효과적이다.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빨리 빨리 하려는 문화가 강하다. 그래서 손해가 될 때가 많다. 전도에 있어서도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도 우리는 그동안 말로만 하는 전도에 치중하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부족하였다.

전도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제자가 되도록, 이들을 여행으로 이끄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수많은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과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또한 믿음의 여정을 그들과 함께할 수 있다.<sup>81)</sup> 이처럼 전도의 과정을 여행을 떠난 여정으로 보면 우리는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세 번째의 한국적 상황에 동반자전도가 필요한 이유는 포스트모던시대에 공동체의 효과이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헌신하기 전에 먼저 소통할 공동체가 필요하고 안전하게 질문을 던지고 의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는 아마도 소그룹이 대부분 교회의 증거 사역의 중심 구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관계 맺는 기술이 있고 생동감 있고 유익하게 토론을 이끄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복음 증거 전략에서 주전 선수가 된다.<sup>82)</sup> 따라서 한국적 상황에서 새로운 동반자전도가 필

80) 문승진, *통하는 전도* (서울: 도마의 길, 2009), 105.

81) Richard Peace, *영혼을 살리는 대화*, 심연회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9), 44.

요한 이유는 포스트모던시대에 공동체가 전도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어 가면서 함께 할 공동체를 원하고 이러한 공동체는 사람들을 함께 하는 여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사람들은 아주 고립되고 개인화되어 손 대접을 통해서 가정에서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전도의 좋은 접촉점이 가능하다. 특히, 목장모임과 같은 소그룹 모임에서 손 대접을 통한 친밀한 교제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소그룹이라는 환경을 좋아한다. 자신과 같이 신앙이 아직 어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에 편안하게 참석할 수 있고, 또한 일방적으로 듣는 것만이 아닌 자신의 질문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소그룹환경을 잘 이용해야 할 것 같다. 이제 교회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예배와 소그룹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은 친절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친구를 찾고 있다. 친밀한 공동체를 특성으로 하는 소그룹은 새롭게 떠오르는 세대에게 다가가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소그룹 운동은 공동체를 향한 인간의 갈망에 대한 대답을 준다. 이러한 갈망은 지난 400년간 주요 패러다임으로 작용했던 계몽주의로부터 다음 100년 간 주요 패러다임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 변화라는 현재의 사회적 변화에서 온 부산물이다.<sup>83)</sup> 포스트모던 세상에서 공동체는 지극히 중요하고 사역의 중심을 차지한다. 1960-70년대에, 그리고 1980년대로 들어서는 시점에 대부분의 기독교 소그룹은 주로 성경공부 모임이었다. 그 속에 다른 세 가지요소들을 약간씩 끼워 넣기는 했지만 말이다. 소그룹은 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적 이해를 추구하고 관계적 차원에는 인색했다. 한 시간 동안 모이는 소그룹이라면 45분은 마음보다는 지성을 강조하는, 머리만 채우는 성경 공부에 썼다. 이제 포스트모던 상황에서 소그룹의 강조점은 마음으로 옮겨 가고 있다.<sup>84)</sup>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함께 살게 되어 있으며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소속감을 갖는다. 특히 다음 세대는 개성을 중요시하여 혼자 있기를 좋아하지만 소외감도 함께

82) Rick Richardson,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 노종문 역 (서울: IVP, 2008), 80.

83) Jimmy Long, *새로운 청년사역이 온다*, 신현기 역 (서울: IVP, 2007), 194-195.

84) Ibid., 198-199.

가지고 산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의지하면서 살도록 만드셨다.

이제 교회에는 함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떤 공동 기반이 필요하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욱 같은 공감을 가지고 기꺼이 공동체로 모이려고 한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개인적 관계에 있어서도 친밀감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한다. 교회는 다음 세대에 이러한 공동체를 제공해야 포스트 모던시대에 소그룹공동체가 전도에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동반자 전도와 원리와 필요에 대하여 언급하기 위해서 동반자전도의 원리와 신학적 근거에 알아보고 동반자전도의 성경적 근거와 필요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목회 현장에서 이루어진 동반자전도의 사례 연구를 살펴보며 평가하고자 한다.

## 제 4 장

### 동반자전도의 사례연구

본 장에서는 동반자 전도의 사례로 타지키스탄의 나침반교회와 한국 대전의 나눔의 교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반자 전도의 사례로서 위의 두 교회를 제시하는 이유는 본 연구자가 직접 목회하면서 동반자 전도를 접목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며, 각기 다른 토양에서의 실천 사례들을 참고하여 좀 더 성숙한 동반자전도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 제 1 절 타지키스탄의 나침반교회

본 연구자는 2005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서 가족과 함께 선교를 하였다. 선교를 하면서 나침반교회에서 경험한 동반자전도 사역을 나누고자 한다. 나침반 교회는 2004년도에 다른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타지키스탄에서 등록교회이다.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목사 선교사 세 가정이 팀으로 사역한 교회로서, 당시 사역 할 때 현자인 성도는 40여명 정도였다.

#### 1. 타지키스탄의 소개

타지키스탄의 국가 공식 명칭은 타지키스탄 공화국(Republic of Tajikistan or Tojikiston)이다. 국가 면적은 14만 3,100km<sup>2</sup>이고 이는 남한보다 크고 한반도보다 작다.

타지키스탄의 자연환경의 개요를 보면 국토는 남한의 1.5배 정도이고 국토의 90퍼센트 이상이 산지이다. 인구수는 6,500,000명 정도이고 수도는 두산베(Dushanbe)이고 수도인구의 연령구성은 0 - 14세: 39.2%(남: 1,384,035명/ 여: 1,361,137명)이고 15 - 64세: 56.1%(남: 157,712명/ 여: 1,976,488명)이고 65세이상은 4.7%(남: 145,717명/

여:186,467명)이다.

창의적 접근지역인 타지키스탄은 소연방 국가 중의 한 나라로 공산주의 아래서 70여년을 있는 동안 이슬람 세력의 중앙아시아를 통한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는 영적 지지선의 역할을 해 왔으며, 동일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프간, 이란 그리고 쿠르드를 있는 관문 종족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국가이다.

종교는 이슬람으로 수니파가 약 85퍼센트, 시아파가 약 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10퍼센트는 기타 종교(개신교, 가톨릭 등)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국민의 약 85퍼센트 이상이 이슬람의 수니파 세력을 이루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속 이슬람'의 영향을 받고 있다.

1992년 러시아로부터 독립하여 1993년도부터 세 개의 당(공산주의당, 이슬람당, 민족주의당)이 서로 정권을 잡기위해서 98년도까지 6년간의 내전을 치룬 나라이다. 때문에 국민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20대 이상의 청장년이 적고 20대 이하의 청소년들이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권은 공산주의 세력이 러시아의 힘을 입어 장악했으며 지금은 라흐마로프 대통령이 독재하고 있으며 다행히 공산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어서 극단적인 이슬람은 정권유지를 위해서 배격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와 같은 내전으로 말미암아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러시아때 전문기술인력은 모두 러시아로 독립과 함께 가버린 상태여서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100만이상이 러시아로 돈을 벌기위해서 가있는 상태이고 경제의 하부구조가 아주 취약하며 세계에서 가난하기로 꼴찌에서 몇 번째 가는 나라이며, 러시아로 부터 독립한 15개 나라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이다. 사회에서 여성과 교육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며, 인구의 50퍼센트 이상이 꿈과 비전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 2. 타지키스탄 전도대상자 필요와 접촉점

### 가. 타지키스탄의 필요

나침반 교회는 2004년 6월 15일 설립하여 타지키스탄 정부에 국내 종교 NGO로

등록된 단체이다. 나침반교회는 선교지의 교회로서 전략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타지키스탄의 필요를 채우면서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고자 했다. 타지키스탄의 필요는 7년간의 내전 이후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내전 이후 그들에게 미래의 꿈과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지키스탄의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까! 소그룹이나 가정교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까!” 하는 질문들을 연구하며 그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되어졌다. 또한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며 또한 세워진 교회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바램도 있었다.

사역의 방향은 삶의 방향을 상실한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고, 삶의 방향이 설정된 젊은이들에게 흔적을 남기는 삶을 지향하게 하고자 했다. 페르시아 지역의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일깨우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며 걸음마다 예수의 흔적을 새기게 하고자 했다.

나침반 교회의 사역의 목표는 비전스쿨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비전과 가치관을 가르치고자 한다. 또한 캠프사역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문화를 정립시키고자 한다. 영어나 컴퓨터 등의 다양한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소그룹을 만들어 복음의 접촉점을 삼고자 했다. 장학사역을 통해서 인재를 발굴하고 지도자로 세우는데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다.

내전이 종료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타지키스탄의 교육은 어렵다. 정부를 보아도 학교당국을 보아도 교수와 학생들을 보아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 비전을 주지 않고 학교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다. 학교당국도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상황이 이러하니 교수와 학생들도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멀쩡한 도로를 자주 수리를 하고 관공서의 페인트칠은 어김없이 일 년에 몇 차례씩 한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건물들을 짓는데 많은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러나 학교를 수리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투자하지는 않고 있다. 열악한 교육환경은 4년여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교사(수)와 학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장학금 사역이었고 장학금 사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캠프사역과 함께 효과적이었다.

여하튼 여러 이유로 상당수의 교사와 교수들이 이직이나 겸직을 하고 있으며 학



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학생들 또한 학습의욕이 미진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며 교육적인 측면만 보면 타지키스탄의 미래가 암담할 뿐이다. 부정적인 도미노현상(정부당국-학교당국-교수-학생)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때 장학금 사역은 첫째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둘째는, 학생들의 학업 동기유발을 일으키기 위하여 셋째는, 지역사회와 보다 좋은 유대관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장학금 사역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심고 있고 기관장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교사 및 학생들에게 학업을 위한 학습의욕을 진작시키고 있다. 도움을 주는 학교마다 계몽사역(이동컴퓨터교실, 마약, 성, 비전, 독서, 위생교육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접촉점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캠프나 알파코스를 통하여 구체적인 도전을 주었다. 복음을 받아들일 경우 소그룹을 구성하고 훈련 받은 학생들을 파송해서 체계적으로 성경공부를 하게 하고자 했다.

타지키스탄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캠프였다. 소규모 또는 중규모의 기능별 캠프는 마음을 열고 교체하는 데 큰 효과가 있었다. 캠프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전문적인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캠프를 통하여 복음을 접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복음을 접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며, 복음을 접하였으되 확신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확신을 경험케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의 확신은 있으되 헌신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헌신케 하며, 헌신 된 학생들에게는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발견케 함과 아울러 열정과 사명감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 선교지의 사역을 통해서 타지키스탄과 같은 사회적인 여건이 취약한 나라일수록 동반자전도가 더 필요함을 느꼈다.

나침반 교회의 사역은 먼저 그들의 문화를 고려하였다. 그들은 초이<sup>85)</sup>를 좋아하는 구전문화였고, 문자를 싫어한다. 그래서 성경공부보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그러면서 삶을 나누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엔 초이를 마시면서 얘기하며 함께 지냈다. 그런 가운데 무하마드란 고등학생의 얘기를 매주 들어주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을 위해서 장학금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응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 하

85) 손님이 오거나 일상의 생활에서 음료대용으로 가장 많이 마시는 차의 일종이며 맛은 우리가 마시는 녹차의 맛과 비슷하다.

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친구가 있었다.

나침반 교회에서의 동반자전도 사역을 정리하면 전도대상자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살펴서 그들의 필요를 알고 복음의 접촉점을 삼았다.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인 폐허의 상황 속에서 인구의 절반이상이 되는 많은 청소년, 청년들을 복음의 타깃으로 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살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필요했지만 먼저 그들이 원하는 영어와 컴퓨터를 배우기를 원하는 것부터 접촉점으로 삼고 어느 정도의 관계 형성이 이뤄지자 점차적으로 의식적인 차원으로 사역을 넓혀 처음부터 먼저 리더를 양육하고 리더들을 통하여 비전스쿨을 진행하게 함으로서 이후에 현지인 리더를 통해서 소그룹공동체를 만드는 데 효과적임을 깨달았다. 이런 사역 경험은 국내에서 본인이 교회개척을 하는데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

#### 나. 접촉점

이슬람 문화권인 타지키스탄의 나침반 교회 사역은 타문화권인 이슬람문화를 연구하여 사역의 근간으로 삼았는데 그 접촉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였다. 첫 번째는 그들의 문화 중 “가족 중심적이고 관계중심적인 문화를 접촉점으로 삼고자”하였다. 전통적인 아랍 무슬림의 가족제도는 가부장 중심의 집단주의 문화에 기반을 둔다. 가족구성원은 가부장을 중심으로 나이와 성에 따라 엄격한 위계질서를 따르며 자녀들은 결혼 후에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확대가족의 성격을 띤다.<sup>8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부장을 중심으로 가족구성원의 연대감은 강하다.

이렇게 이슬람에서의 가정은 가정과 사회 전반에 걸쳐 생활의 지침을 제시한다. 꾸란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먼저 구원하라”는 화두를 제시하고 무슬림도 평생을 살면서 이 화두에 매달린다. 자기를 혁신하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가운데 끈끈한 유대관계와 공동체를 형성하길 바란다. 그래서 삶을 기념하는 건전한 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종교적 의무로 삼는다.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마다. 그와 관련된 공적 의식을 장려한다.<sup>87)</sup>

86) Halim Barakat, "The Arab Family and the challenge of Social Transformation," in Elizabeth Wamock Femea ed. Women and the Family in the Middle East New Voices Chang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5.

아랍 무슬림들이 친구와 이방인을 다루는 방식은 판이하다. 아랍인들은 친구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관대하며 언제나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외의 사람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 법칙은 학문의 세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세계에도 마찬가지로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런 연고 없이 아랍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랍 세계에서 사업의 성패 여부는 누구와 친분이 있는지에 달려있다. 때문에 아랍 세계에서는 공적인 관계가 아닌 개인적인 관계가 모든 것을 바꾼다.<sup>88)</sup> 이렇게 이슬람문화는 관계적이다. 모든 것이 관계가 있어야 가능하며 사회의 원칙이 있되 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면이 많고 체면문화 또한 강하다. 이슬람 문화권인 타지키스탄 선교지에서 복음을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 중심적이고 관계적인 그들의 문화를 고려하여 초대교회의 관계적인 모습을 연구하게 되었다.

먼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하는 일에서 별로 성공하지 못했던 것(행17:1-9)으로 보인다. 그 후에 그는 방법을 바꾸어 어느 곳을 가든지 영향력 있는 가정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 가정은 바울이 그 도시에서 활동하기 위한 근거지의 역할을 했다(참고 행16:13-34; 17:2-9; 18:1-11).<sup>89)</sup> Gehring은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가르침을 베드로의 집 안에서(혹은 집 앞에서)하셨다고 본다. 그 증거로는 마가복음 1:29, 33; 2:1; 3:20; 9:33을 들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삶을 사시므로 보여 주셨다.<sup>90)</sup>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집을 중심으로 선교하셨던 방식은 제자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바울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위의 공관복음서(막1:29, 33; 2:1; 3:20; 9:33, 눅10 :2-12)에 따르면 예수님의 집을 중심으로 한 선교방식은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87) Yahiya Emerick,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이슬람*, 한상연 역 (서울: 삼양미디어, 2012), 154 요약.

88) 임의란, *무슬림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과주: 도서출판 한울, 2009), 114-115 요약.

89) Branick Vincent,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The House Church in the Writings of Paul)*, 홍인규 역 (UCN, 2005), 23.

90) Roger Gehring, *House, Church and Mission: The Importance of Household Structures in Early Christianity*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4), 48.

아니라 바울도 가정집을 중심으로 선교하는 전략은 회당 선교의 실패로 따른 상황적인 발전이면서도,<sup>91)</sup> 예수의 가정중심의 사역방식을 따라했던 것 같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가정을 중심으로 사역한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정은 편안함을 줄 뿐만 아니라 친밀한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좋은 장소이다. 더욱이 꺾박받는 초대교회 상황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선교했던 사역방식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사역은 이와 같이 가정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전16:15; 딤후전3:4; 5:1-2). 또한 집축점의 두 번째는 “그들의 문화가 환대문화이다”는 점이다.

환대를 큰 머덕으로 간주하는 아랍인들의 음식문화의 전통은 이슬람교가 도래하기 전부터 존재했다. 명예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아랍인들은 손님에게 풍성한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관대함을 보여준다. 중동 지역 음식문화를 연구한 헤인Heine은 명예를 지키기 가장 쉬운 길은 손님접대를 융숭하게 하는 것이며 명예를 잃기 가장 쉬운 길은 인식하고 야박한 손님 접대라고 언급하고 있다.<sup>92)</sup> 본 연구자도 타지키스탄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손대 접대를 풍성한 음식대접을 통해서 받은 여러 번의 경험이 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관습이 있었다(고전11:33).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서로간의 관계를 늘 인식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그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 만찬은 가정에서 이루어졌었다(롬16:23; 행20:8; 고전11:20)<sup>93)</sup> 예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교회는 지체 서로 간에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각 지체들을 세워나가야 한다(고전14:1, 9, 26). 신약의 교회는 식탁 교제를 통해서 자신들을 섬겨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동시에 지체를 섬기는 사랑의 사역을 하였던 것이다.<sup>94)</sup>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가정을 중심으로 한 관계적 전도사역은 이슬람 문화권에

91) Branick Vincent,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23.

92) Heine Peter, *Food Culture in the Near East Middle East North Africa*, (Green Wood Press London), 2004.

93) Robert Banks,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상(Paul's idea of community: the early house churches in their historical setting)*, 장동수 역 (서울: 여수론, 1991), 136-140요약.

94) Robert Banks,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상*, 150.

서 동반자전도를 하는데 있어서 좋은 접촉점을 주었다. 그리하여 동반자전도를 할 때 이슬람 문화권에서 관계중심적인 면과 음식을 통한 환대문화를 접촉점으로 잘 활용할 수 있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가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에 있어서 이와 같은 관계적인 면과 음식을 통한 섬김은 동반자전도를 위한 좋은 전도방식이 될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되었다.

## 2. 관계를 통한 동반자전도

관계를 통한 동반자전도는 영어와 컴퓨터로 관계를 맺고 비전스쿨과정을 통해서 함께 하는 여정의 시간을 가지며 소그룹사역을 통해서 공동체와 양육의 시간이 경험할 수 있었다.

### 가. 영어와 컴퓨터사역

본 연구자는 2006년 같은 파송선교단체에 윤00목사가 선교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선교사의 나침반교회 종교단체사역을 본 연구자가 맡게 되면서 현지인 리더 일홈 형제와 연결이 되고 중 고등학교에서 영어와 컴퓨터사역을 계속 진행해 갈려고 한 시점에서 교육법의 변화로 교육허가증을 받아야만 중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사역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법이 바뀌게 되어서 아파트에서 땅이 있는 일반 주택 집으로 옮겨 2007년 5월부터는 큰방 하나와 작은 창고2개를 개조하여 컴퓨터 클래스와 영어 클래스를 운영해 왔다. 컴퓨터반 5명과 영어 클래스 5명을 모집하여 가르쳐 왔고 컴퓨터반은 주로 무하마드 친구들과 고등학생 위주로 영어 클래스는 산진보이와 니고라를 중심으로 주로 대학생들 위주로 가르쳤다.

이렇게 영어와 컴퓨터 클래스는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강의하고 화요일 수업 후에는 아이들과 축구를 목요일 수업 후에는 아이들 가정에 심방을 다녔다. 그들의 부모들과 음식을 먹고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의 분위기도 알고 아이들을 위한 많은 참고를 얻을 수 있었고 이렇게 관계를 맺은 아이들과 조금씩 영적인 대화로 옮겨 가게 되었다.

2007년 9월부터는 토요일에 성경공부를 2008년 1월부터는 주일에 주일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한국으로 나오기 전까지 현지인 40명 정도가 모여 토요일에는 성경공부

와 주일에는 예배를 드렸다.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을 어느 시기엔 영적 초청의 시간으로 인도해야 한다. 영적문제를 바로 다루기 이전에 서로의 삶의 관심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전도자가 관심을 가지고 전도대상자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로 접촉하는 것이 좋다. 굳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보다 관심주제로 함께 삶과 연결하여 나누면서 마음을 열게 하며 심금을 통해서 주일날 공동체에 초대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남의 필요를 알아서 맞춰가며 섬기는 능력은 갈수록 개인주의화 이기주의화 되어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 한 것이다. 현대인의 삶의 정황들을 보면 굉장한 개인주의화, 가족주의화, 내 삶이 우선시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필요성과 신앙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예수님은 그의 메시지와 삶이 분리되지 않으셨다. 이제 아파하는 현대인들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섬기면서 세상으로 나가야 할 때이다.

우리 역시 우리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대상들의 마음과 형편을 이해해야한다. 오늘날 세대의 이해가 필요함을 이 시대의 사람들을 동반자로 섬기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알아야, 관심과 같이 늘면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문제는 방법이나 어떻게 하느냐는 상황보다 본질과 원리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은 세상에 많은 필요들이 있다. 그런 필요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때 그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받는다.

#### 나. 비전스쿨사역

지금 타지키스탄에서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복음의 좋은 타깃이다. 왜냐하면 독립 이후 7년간의 내전으로 많은 장년층이 죽고 없으며 그들의 3분의 2이상이 이들 연령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에겐 꿈이 없고 일할 자리가 없으며 이념에 있어서도 단지 공백 상태이다. 그들의 부모에 의해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고 생활양식인 이슬람, 그러나 이슬람이 그들의 미래나 꿈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 심방을 가보면 학교 갔다 와서 텔레비전보고 잠자고 하는 것이 그들 생활의 전부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20대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꿈이 생기고 인생이 기쁘고 의미 있던지 이런 본 연구자의 간증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하루는

그들과 밤을 세워가며 그들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었다. 그들의 꿈은 동네 슈퍼의 계산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액셀을 배우고 싶은 게 그들의 꿈이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고작 꿈이 그랬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그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오다가 이들에게 비전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원설 박사의 비전스쿨 교재를 구하여 타지키스탄 국립대 타지키스탄언어교수인 하이다로브 교수와 함께 3-4개월 동안 한국어를 타지키스탄어로 번역하여 비전스쿨의 교재를 만들고 선생님들을 준비하고 1회 비전스쿨을 열었다. 학생들은 20명 정도 참여하였고 10장 정도로 주 2회씩 한 달 가량 진행했는데, 비전스쿨의 내용은 1) 비전이 왜 필요한가? 2) 내 자신을 정확히 알고 나의 미래를 그려보기 3)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나의 노력과 장애되는 요소의 극복 4) 비전선언문 작성과 결단, 그리고 실행하기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비전스쿨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들이 비전을 가져도 사회적인 열악한 환경이나 문화가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부모나 선생님들 역시 함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전스쿨을 들었던 학생들 졸업반 11학년<sup>95)</sup>중 리더들과 연결하여 복음의 좋은 접촉점을 삼았다.

전에는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자 비전스쿨을 계획하고 진행하였으나 비전스쿨을 진행하다 보니 그들의 부모님도 함께 비전을 가지고 자녀들을 지도해야 하며 꿈을 주며 실제적인 마을공동체가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평소 지역사회개발에 관심이 많았던 가운데 국제기아대책기구로부터 훈련을 받고 가서 더 큰 비전을 품어야 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타지키스탄 친구들의 진정한 영적 친구가 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보면 처음엔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영어와 컴퓨터 사역을 시작하였으나 비전스쿨을 통하여 점점 더 의식적인 사역으로 발전했으며 이후 공동체 리더를 세워 양육할 수 있는 과정을 가지게 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선교지에서 전도도 단기간의 전도보다 전도대상자와 함께 하는 과정으로서 여정이 필요함을 느꼈다.

95) 타지키스탄에서는 초등, 중등, 고등과정이 통합되어 학년을 일컬어 11학년이면 우리의 고등 3년 과정이 된다.

#### 다. 소그룹리더를 통한 전도

관계와 여정을 통한 삶에서의 동반자전도는 소그룹공동체의 양육을 통해서 더욱 결실을 맺게 된다. 2008년 1월부터 윤00목사와 다시 연결이 되면서부터 가정교회(소그룹) 리더들과 접촉하게 되었고 윤00목사가 타지키스탄에 있을 때의 제자들 10명 정도가 3개 정도의 가정그룹 형태로 40명 정도로 모이고 있었다. 이들 중엔 몇 명은 신학훈련 중에 있는 친구도 있다. 물론 우리 그룹의 일홈 형제도 신학훈련이 필요한 때였다. 특히, 리더와의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어른은 자신들이 신뢰하고 존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운다. 말만 하고 성의가 없는 세일즈맨에게는 등을 돌린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 지도자에게 가장 현저하게 요구되는 사항은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어근의 의미는 '믿다'에 해당하는 헬라어에서 나온다. 지도자는 '믿을만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은 신뢰, 돌봄, 사려 깊음 등을 말한다.<sup>96)</sup> 그렇기에 리더를 잘 선택해서 앞으로 소그룹공동체를 맡기는 일은 동반자전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주로 이들은 카작키스탄의 실크로드 신학교 2년 6개월 과정인데 1년마다 4차례 걸쳐 일주일씩 인턴시브코스로 진행되었는데 선교사가 세운 신학교인데 좋은 평이 있는 신학교였다.

타지키스탄에서의 교회개척 형태는 앞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가정교회 형태로 지향하고 있었다. 때문에 가정교회 리더들을 잘 양육하여 그들로 하여금 가정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있어서 선교사들은 그들은 돕고 세워 나가려고 하고 있다.

사람들은 소그룹이라는 환경을 좋아한다. 자신과 같이 신앙이 아직 어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에 편안하게 참석할 수 있고, 또한 일방적으로 듣는 것만이 아닌 자신의 질문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그룹환경을 잘 이용해야 할 것 같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종교적 설득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려 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삶에서 섬김과 환대를 통한 관계형성이 더욱 중요한 것 같다. 평소의 삶에서 섬김의 삶을 살도록 먼저 훈련되어야 할 것 같다.<sup>97)</sup> 이렇게 리더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형성되면 리더들은 타지키스탄 사람들을 또 다시 동반자가 되어 주어 섬기면서 복음의 접촉점을 삼는다.

타지키스탄 나침반교회에서 동반자전도 사역을 정리하자면 타문화권인 선교지에

96) John Finney, *새로운 전도가 온다*, 138.

97) 성서유니온, *앰마우스 믿음의 길*, 14.



서도 동일하게 동반자전도의 원리인 관계와 여정과 양육이 필요했었음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타지키스탄의 일반적인 상황과 특별히 7년간의 내전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영어와 컴퓨터, 비전스쿨로 접촉하기에 관계를 맺는데 좋은 동기가 되었다. 아울러 선교지의 상황이 복음을 전하기에 자유롭지 않은 초대교회와 비슷한 상황을 고려하여 초대교회의 관계적인 모습을 연구하면서 선교지의 사역에 적용해 보려하였다. 특별히 공동체의 양육을 위해서 선교지의 특성상 소수 리더들에게 집중하여 신학과정을 통해서 양육에 힘썼으며 이후 리더들은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데 있어서 현지인 중심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타문화권에서 동반자전도를 적용한 것을 다음 절에서는 한국적 상황에서 동반자전도의 사례를 대전의 나눔의 교회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제 2 절 대전의 나눔의 교회 사례연구

본 절에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나눔의 교회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하려고 한다. 먼저, 대전시 유성구 지역의 특성을 살펴본 후, 이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 전도대상자의 필요와 접촉점을 알아 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차원의 동반자전도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 1. 지역 상황

대전광역시는 서해안 개발시대를 맞아 중부권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성장거점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1989년 직할시로 승격했으며, 이와 함께 유성구·대덕구를 신설하는 등 행정구역이 늘어나게 되었다. 1994년 광역시로 이름이 바뀌었다. 경부선·호남선, 경부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의 분기점이 되는 교통의 요지로서 지금까지는 소비도시적인 성격이 강했으나, 대덕 연구단지 조성, 1993년 대전 세계박람회 개최, 3군사령부 이전 등을 계기로 행정·과학 중심도시,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중핵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동구(東區)·중구(中區)·서구(西區)·유성구(儒城區)·대덕구(大德區) 등 5개구 81개 행정동 178개 법정동이 있다.<sup>98)</sup>

98) 한국 브리태니커, "대전광역시",

또한 유성구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제 1수도권에 이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제 2수도권의 이전에 따라 세종시가 도시 자족기능을 갖추기까지는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므로, 교육 및 생활편의 시설 등의 공백부분을 배후도시인 대전의 유성에 수요 충족의 필요<sup>99)</sup>가 있다. 이에 따라 유성의 주택수요전망을 보더라도 유성의 주택수요는 교육수요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 교육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주택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신도시인 유성구 노은지구는 교육인프라가 우수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한 관계로 주택수요가 많아 전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여기에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노은지구를 선호<sup>100)</sup>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유성구 노은지역은 주거지로 급부상하여 살기에 좋은 주거지로 되어있다.

대전은 우리나라의 교통의 요충지이자 광역도시이다. “2009년 제4회 유성구 사회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유성구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유성구지역의 연령대별 분포와 특징을 알 수 있다. 유성구의 연령대별 분포와 특징은 부록 1에 수록되어 있다. 유성시 인구중 30대와 40대가 전체의 5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교육 수준별 분포도 대졸이상의 학력이 47.8퍼센트로 고학력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다. 직업별 분포도 역시 전문 관리직이 20.5퍼센트, 전업주부가 21.7퍼센트, 서비스직이 12.5퍼센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sup>101)</sup>

유성구 지역은 11년 전에 노은 1지구와 5년 전에 노은 2지구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인구유입이 있었다. 유성구 지역에서도 특히 신도시인 노은 1, 2지구의 대표적인 지역교회로는 노은 1지구의 노은교회(침례교, 장년출석교인 600여명교세)와 노은 2지구의 행복한 교회(합동, 장년출석교인 600여명)가 있고 늘사랑교회는 부지 1,600평 규모의 교회당을 이전 신축 중에 있다. 아울러 요즘 들어 주성천교회와 하늘정원교회 등이 새로이 성장하고 있으며 노은 2지구에는 많은 개척교회들이 개척을 시도하고 있으나 자립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많지 않다. 특히, 이 지역은 신도시로서 인구이동이 많고 지적수준이 높다보니까 재정적인 면은 좋으나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4d3126b](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4d3126b).

99) *story*가 있는 세종&유성 정책자료집, (<http://www.yuseong.go.kr/>, 2011. 1), 16.

100) *story*가 있는 세종&유성 정책자료집, 44.

101) 2009년 제4회 유성구 사회조사보고서, <http://www.yuseong.go.kr/>.

전통적 목회방식으로 많은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는 목회의 방식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

##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의 전도대상자의 필요와 접촉점

### 가. 유성구지역 전도대상자의 필요

유성구에는 유성구청의 통계자료에서 나타난 것 같이, 30대(25.8%)와 40대(24.5%)가 많이 살고 있다. 이 세대들은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특히, 유성구 지역이 대덕구와 인접해 있어 연구원을 비롯한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으로 세종 신도시가 입주하게 되면 유성이 세종시 배후도시로서 이와 같은 특징은 더욱 두드러지리라 본다.

송호근은 그의 연구<sup>102)</sup>에서 현재 한국사회 중요한 세력인 386세대(35-45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 세대가 한국사회발전에 헌신하여 왔다면 포스트 386세대(20-35세)는 개인주의와 감성주의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때문에 386세대는 중년기에 들면서 갈수록 보수적으로 변화되어 가족 중심적인 삶을 살코자 한다.

따라서 교회는 이런 386세대의 필요를 고려해서 가족 중심적이고 자녀교육중심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386세대의 이러한 가족 중심적인 삶을 살코자 하는 그들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 주면서 전도의 좋은 접촉점을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도는 귀 기울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에 대해 거침없이 말하기 전에 먼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에 필수인 공감으로 반응할 수가 없다. 친구와 함께 기뻐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귀 기울여 듣는 행위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게 해 준다.<sup>103)</sup> 때문에 우리는 말하기 전에 그들의 필요를 들어야 한다.

유성구 지역의 30대와 40대 세대는 바쁜 현대생활로 쉽과 가정, 아이들 양육문제와 경제적 욕구가 가장 큰 그들의 필요이다. 탁석산은 그의 책,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한국인이 걸어온 길을 생존(-1961년)-생활(1961-1992년)-행복(1993-2000

102) 송호근, *한국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서울: 21세기북스, 2005).

103) Christine D Pohl,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159.

년)-의미(2000년-)의 시대로 구분한 것에서 그가 말하는 생활의 시대는 경제개발계획이 본격 가동된 박정희 정권부터 문민정부 이전까지의 시기를 말하는데, 산업화 시대라고 볼 수도 있다. 이때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생활을 갈망하게 되었다. 생존에 여가를 더하면 생활이 된다. 산업화, 도시화의 풍토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자립적인 삶 이상을 영위할 수 있고,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할 만한 준비도 된 것이다. 주로 이러한 시기에 30대와 40대 세대는 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되면서 그들의 필요 또한, 당연한 삶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유성구에서는 주된 타겟 계층이라 할 수 있는 30대와 40대들의 필요에 민감하여 교회가 이들 세대의 필요를 섬기면서 교회사역에 있어서 접촉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나. 접촉점

우리는 접촉점을 통해서 지역교회가 자리 잡은 우리 이웃의 관심사에 함께 여행을 떠나는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들의 관심과 필요를 따라 우리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얘기 할 수 있고 때론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상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유성구 지역의 특징과 필요를 알아보면서 나눔의 교회는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와 문제가 자녀 양육이나 삶의 질의 관심, 가정의 부부문제임을 알았다. 따라서 대전에서의 나눔의 교회는 키즈북카페를 통해서 자녀 양육의 필요를 채우려 했으며, 족구동우회와 같은 동우회 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의 관심을 함께 했다. 아울러 가정의 부부문제의 필요를 위해서 부부세미나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전도의 접촉점을 삼고자했다. <표 1>은 부부세미나 프로그램의 구성을 표로 만든 것이다.

대부분의 성인들은 일단 안전감을 느끼는 상황이 되면 자신을 열어 보이려고 한다. 그분을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인내하며 적극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 주어야 한다. 먼저, 진실한 존중과 신뢰감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불신자들은 자신의 삶에 간섭해 들어오는 사람을 불편하게 느낄 것이 뻔하다.<sup>104)</sup> 따라서 전도에 있어 의도적이라 할지라도 신뢰감을 쌓아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경우 전도의 관건

104) Ibid., 28.

은 우리의 영적 경험을 어떻게 일상적인 경험과 연결 지어 불신자 친구들에게 그것을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있다.

<표 1> 부부세미나 프로그램구성표

시간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토 오 후 4-6	영화 파이어	다큐멘터리 MBC스페셜 사회공헌캠페인“부부화목만사성”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1부:신혼으로돌아가는법/2부:행복한부 부의비밀		특집다큐멘터리 레나홍 할머니 재 회 <반갑습니다.>	
7-9	O.T 및 소개 영화나눔 조나 눔	(레)부부장점20가 지나누기	부부대화부부의 성 -이희범목사 <SBS그것이(성) 알고싶다.> (레)부부데이트	가계분석강의 - 안덕수교수 영상물감상“죽음” - 유언장쓰고 장 례식	
9- 11	피플 퍼즐 세미 나(디모데성경 연구원)- 평신 도집사	창조의원리,가정제 도원리 -주수일장로님	자녀교육 -강미향목사	아버지학교 김장로님의 강의	

전도의 접촉이후에는 처음엔 일상사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영혼을 살리는 대화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감성시대에 살고 있기에 우리는 크든 작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한 이야기를 떠올려야 한다.<sup>105)</sup> 그 다음, 일상적인 대화에 적합하게 이야기를 정리해서 나누어야 전도에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이처럼 이웃에 좋은 친구 관계를 맺어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여 전도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섬김을 통해서 채워주는데 부터 시작해야 할

105) Richard Peace, 영혼을 살리는 대화, 54요약.

것 같다. 이렇게 함으로서 처음 세상 사람과 접촉하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여는 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 3.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전도

이미 언급 한대로, 세 가지의 접촉점으로 사회문화적인 전도를 하였다. 첫 번째 자녀 양육문제를 접촉점으로 한 동반자전도의 내용을 살펴본다.

대전의 유성구지역의 지역조사에서 살펴본 대로, 대전 나눔의 교회가 위치한 유성구는 자녀들을 둔 30-40대의 학부모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 당시 자녀들이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생들을 둔 학부모로써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학부모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다가 겨울 방학이 되어 아이들 친구 엄마들 10여명을 집으로 초대하여 아동미술을 가르치며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학부모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현대인들의 아파트 생활은 서로가 모르고 지내기가 쉬운데 자녀들의 학부모로써의 접촉점은 자연스런 관계를 맺기에 좋았다. 그 후 이렇게 맺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으면서 학교앞 거리 교통안내 봉사활동을 하면서 더욱 가까운 이웃이 되어갔다. 이렇게 가까워진 이웃집 중에는 김00씨(식당운영)와 박00씨(이웃)는 평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경우도 있다. 현대인들은 익명성을 좋아하나 누구나 소외감을 가지고 산다. 때문에 각박해진 현대인들의 신도시 아파트 문화를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이 살았던 아파트지역에서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이웃과 자연스럽게 음식을 갖다 주며 이웃으로써 소개를 하면서 가깝게 다가가자 처음에는 서먹한 사이였으나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같은 고향이던지 아이들 학년이 같던지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곧바로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았다.

본 연구자는 나눔의 교회 부설 키즈 북카페<sup>106)</sup>를 통한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그들의 부족한 것과 신앙여정을 파악한 후 기회를 보고 복음을 전하였다. 그에 대한 열매로 키즈 북카페에서 10주의 자녀 논술교육 소그룹모임을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졌는데, 10주의 과정을 통해서 학부모들과의 관계를 맺는 가운데 학부모 중 한 사람은 영

106) 초등학교 입학전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이 불만한 도서를 마련하고 하고 볼 수 있도록 만든 카페식 어린이 도서관을 일컫는다.

적으로 갈급하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준비된 영혼도 만날 수가 있어 복음제시와 함께 곧바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이 자라가는 경우도 있었다.

두 번째 삶의 질의 관심을 접착점으로 한 동반자전도의 내용을 살펴본다. 본 연구자는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의 삶을 보면서 특히, 남자들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이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을 알고 남자들을 접착할 기회를 찾고 기도해 오던 중 현대 남자들의 지치고 피곤한 일상을 보게 되면서 이들에게 쉼과 휴식이 필요함을 느끼고 같은 아파트 지역 안에 족구동우회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조금씩의 반응을 보여 오던 아파트 주민들이 나중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7시부터 2시간씩 족구를 통해 한주간의 그들의 피곤한 심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족구동우회를 통해서 많은 유익이 되었던 것 같다. 이 모임을 통하여 20여명의 남자회원들을 접착하며 미래의 성도가 될 것을 기대하며 만났던 것 같다. 그중에 몇 사람을 전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세 번째 가정의 부부문제의 필요를 접착점으로 삼기위해서 앞의 <표 1>에서 살펴본 부부세미나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동반자전도를 하였다.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데 영혼을 사랑한다 함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느 시대이건 그 시대나 지역의 사회문화적 필요를 알아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전도를 할 때는 그 무엇보다 성령에 의존하여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전할 메시지를 성령께 의뢰해야 한다. 또한 전도를 잘하기 위한 사람 편에서의 노력은 주위 사람들의 삶속으로 들어가 좋은 인상을 심어 주면서 자신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전하기에 앞서 먼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채워 주라. 이웃과 관계를 쌓고 그들의 신앙 여정을 파악한 다음에, 기회를 봐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여 한다.<sup>107)</sup>

또한 교회론의 측면에서 선교적 교회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altractional)하지 않고 성육신적(incamational)이고자 한다. 성육신 적이라 함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만나려면 반드시 와야 하는 거룩한 장소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다. 오히려 선교적 교회는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107) Bill Hybels,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정성목 역 (서울: 두란노, 2006), 74.

되기 위해 사회의 틈과 갈라진 곳에 스며든다. 선교적 교회는 영성의 측면에서 이원론적(dualistic)이 아니라 메시아적(messianic)이다. 즉 그리스-로마 제국의 세계관이 아닌 메시아 예수의 세계관을 채택한다. 세상을 거룩한(종교적) 것과 속된(비종교적) 것으로 나누어 보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총체적, 통합적으로 본다.<sup>108)</sup>

문화와 전도는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과거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이성에 근거한 논리를 중요시했다. 하지만 지금은 감성에 근거한 직관과 체험을 중요시한다. 이제 우리는 감성, 느낌, 이미지, 스토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는 감동을 주고받는 따뜻한 감성 전도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감성의 시대에 전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감동을 창출해 내는 삶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주위를 돌아보고 다른 이에게 도움을 줄 만한 일을 찾아야 한다.<sup>109)</sup>

이처럼 나눔의 교회는 지역사회를 조사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과 문화를 이해하며 전도한 결과 처음 부임할 당시에 비해 많은 수적인 성장은 못하였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접촉점을 통해서 나눔의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많은 씨를 뿌리게 되어 미래에 얻게 될 많은 열매를 기대하게 되었다.

### 제 3 절 사례연구를 통한 동반자전도 사역의 평가

본 절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한 동반자전도 사역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다. 먼저, 사회문화적, 관계적동반자전도의 병행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사회적 접근을 통해 관계적 목장소그룹으로 인도함을 논의할 것이다.

#### 1. 사회문화적, 관계적동반자전도의 병행

선교지 타지키스탄에서의 관계적 차원의 동반자전도 사역 때 특히, 미국 휴스턴 서울침례교회가 가정교회의 모델로 잘 정착된 사례를 알게 되어 이러한 가정교회형태를 관계적 차원의 동반자 전도 사역 때 활용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목회자들이 소그

108) 마이클 프로스트, 앨런 허쉬, *새로운 교회가 온다*, 지성근 역 (서울: IVP, 2009), 33p.

109) 이상만, *오이코스 전도이야기*, 46.



를 지향하며 관심 갖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겠다. 첫째는 전통적인 목회에 대한 한계와 갈등 때문이고, 다른 한 가지는 현대인들이 고독하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어느 누구나가 안정된 환경 속에서 소속감을 갖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갈등과 고민을 소그룹에서 해결하고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가정교회야말로 다양한 소그룹 형태 중에서 가장 좋은 분위기, 혹은 환경을 지니고 있다. 가정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시행해야 할 사역이다.

그 이유를 윌리엄 백헨은 다음의 다섯 가지를 들어 설명한다.

우선, 가정교회는 성경에 기초한 사역이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약성경에서 보여주는 모범을 따라야 한다. 그 모범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소그룹의 선구자로서 군중들에게 보다 소수와 함께 지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을 가르치셨고 특히 '집에서 집으로' 매일 집집마다 들어가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이나 그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시며 말씀을 가르치신 후, 열 두 제자의 쉼을 만드시고 그 중심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두셨다. 이처럼 예수님도 가정을 방문하셔서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다. 또한 초대교회는 분명히 가정교회였으며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져 가정교회 사역에 헌신했던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가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이유는 성경에 근거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가정교회의 분위기 때문이다. 초대 교회의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집에서 모임을으로써 일상적인 삶의 자리인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는 데 소중한 역할을 한 것처럼 한 가족임을 깊이 느낄 수 있는 현상이 가정교회이다. 함께 식사하고 삶을 나누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공부하고 받은 은사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가정교회이다. 또한 함께 배우며 같이 성장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서로 지체 의식을 가지기 때문이다. 안정감과 소속감을 강하게 하며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치료의 효과도 큰 것이다. 세 번째, 평신도 사역자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다. 가정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사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실현하게 한다는 점에서 목회적 가치가 매우 크다. 바로 가정교회는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워서 역량껏 목사처럼 양떼들을 부지런히 살피며 사역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네 번째, 선교와 전도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지상 최고 명령이 무엇인가? 전도와 선교가 아닌가? 가정교회를 통한 전도와 선교는 엄청난 힘이 발휘된다. 가정교회야말로 복음 전도를 위해 가장 강력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그 이유는 각 가정교회별로 관계 속에서

진도하며 선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장소적 이유 때문이다. 가정교회는 장소적으로 지장 받지 않고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으며 지역적으로 제한이 없다. 좋은 관계로 향상이 되고 토양만 갖추어진다면 장소적 이유로 곤란을 받지 않는다. 가정, 셀교회에서는 건물을 교회 형성으로 보지 않는다. 전통적 교회는 성장하기 위해 건물을 지으나 가정, 셀 교회는 성장하고 건물을 짓는다.<sup>110)</sup>

이와 같은 가정교회의 장점에 대해 박영철교수는 "가정교회가 교회의 본질로서의 가족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고 한다. 성령께서 친히 함께 임재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서 사랑 공동체는 결코 대형 교회 속에서가 아니라 소규모의 가정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 공동체로서의 교회, 영적 가족으로서의 교회는 가정이라는 작은 규모를 필요로 하며. 이 점에서 가정 교회는 공동체 실현과 공동체 경험의 결정적 장소이다. 더욱 전도가 어려운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구체적인 관계성 경험을 위한 소그룹화 현상은 가정 교회라는 작은 모임을 통해 이를 수가 있다."고 한다.

또한 그는 "가정 교회가 제자 훈련을 위한 최적의 장소이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상 명령을 통해 예수께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방법을 알려 주셨다. 하지만 교회들은 가르치는 일에 열중해 왔으나 지키게 하는 일에 실패해 왔다. 그러나 가정 교회의 경우 각 가정에서 서로를 충분히 보여 주고 관찰할 수 있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모델이 됨으로써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일을 적극적으로 격려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듣고 배우기보다 보고 배우다'는 말이 실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곳이 가정 교회인 것이다.<sup>111)</sup>

이와 같이 윌리엄 백햄과 박영철이 말한 가정교회의 장점들은 초대 교회때 가정 교회는 예배중심 공동체였지만 오늘날 가정교회의 목장소그룹공동체는 관계의 장으로서 소그룹의 역동성을 살려 동반자전도의 좋은 접촉 장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동반자 전도를 전개함에 있어서 사회문화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가정교회의 관계적인 면을 잘 살려 동반자전도를 병행하여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는 것이다.

110) William A. Beckham, *제2의 종교개혁(The Second Refonnation)*, 터치코리아사역팀 역 (서울: 도서출판NCD, 2000), 35-39. 요약.

111) 박영철, "가정교회 운동의 목회적 가치와 철학," *목회와 신학* 2007년 11월호, 88-89.

## 2.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해 관계적 목장<sup>112)</sup>소그룹으로 인도

타지키스탄 나침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영어, 컴퓨터, 비전스쿨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활동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관계적 목장소그룹으로 연결하였다. 한국에서의 가정교회<sup>113)</sup>들은 목장만을 전도의 도구로 삼으려 지나치게 목장소그룹만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목장에 오기 전에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전문적인 사회문화적 공동체가 섬김으로 전도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고 목장소그룹으로 인도한다면 다양한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활동이 목장소그룹과 상호보완하면서 동반자전도에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공동체의 활동들은 좀 더 큰 대그룹 교회구조와 같은 곳에서 전체적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계획과 그 활동을 주관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불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만드는 일이라고 하였다. 만일 “제자를 만들지 않는 교회는 교회 간판을 내려야 한다”라고 까지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최형기목사는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의 활동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모델과 같이 전도 중심적인 사역을 할 때 교회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자는 이미 선교지에서 가정교회를 사역의 일부분이나마 경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제 2의 선교지와 같은 복음전파가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소그룹이 전도의 좋은 접착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부방이나 주말을 이용한 다양한 부부나 부모를 위한 자녀교육세미나 등은 고려해 볼만한 좋은 활동들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에서의 만남과 접촉은 목장소그룹으로 인도하기 전에 거칠 수 있는 좋은 여정이 된다. 따라서 동반자전도 사역때 다양한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접촉된 전도대상자들을 관계적 목장소그룹으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에 좋은 사역방법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 3. 접착점으로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소그룹이 중요

112) “목장”이라함은 한국교회에서 전통적인 개념으로 따지자면 구역예배(모임)에 해당하나 본 연구자는 소그룹모임을 미국 휴스턴 서울침례교회가 지칭한대로 “목장”이라 칭한다.

113) 미국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최형기목사가 시작한 가정교회형태를 지칭한다. 선교지에서부터 본 연구자는 이러한 형태의 가정교회로 교회를 개척해 왔다.

이제까지 전도방식이 개인 간의 관계를 통한 전도이었다면 앞으로는 소그룹을 형성하여 전도하는 방법이 개인 간의 관계전도의 한계를 극복하리라 본다.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소그룹은 일반적인 소그룹과는 달리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신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분야와 관련된 소그룹을 새롭게 개발해내야 한다. 불신자, 새 신자들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소그룹들을 다양화해서 그들이 소그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폭이 보다 더 넓어지고 개방적이 되어야 한다. 폐쇄적이고 전통만을 고집하게 하면, 불신자, 새 신자들의 관심을 더 이상 끌어낼 수 없다. 불신자들, 새 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게 되는 소그룹들을 많이 만들어두면, 보다 더 쉽게 교회를 찾을 수 있고, 전도 소그룹이 그 중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소그룹들은 전도의 대상의 폭을 더욱 넓혀준다. 그만큼 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소그룹들을 만들어가면서, 그와 동시에 다양한 전도팀들을 만들 계획을 미리 구상해보아야 한다. 전도대상의 세대에 맞는 전도대상의 소그룹들을 연구해서 그런 소그룹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뒷받침을 해준다면, 소그룹 전도는 더욱 활력을 얻게 될 수 있다.<sup>114)</sup>

예를 들면, 자녀교육문제에 관련된 소그룹, 가정의 부부문제에 관련된 소그룹, 각종 동우회에 관련된 소그룹 등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집족을 소그룹이 가정교회 목장소그룹 공동체와 연결된다면 동반자 전도가 더 좋은 열매를 얻으리라 기대한다.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동반자전도 사례연구를 통해서 선교지인 타지키스탄의 나침반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동반자전도사역과 한국의 대전 나눔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동반자전도사역을 제시하고 두 사례를 통해서 나타난 동반자전도의 사례를 평가해보았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한우리교회의 동반자전도사역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14) 김충현. “소그룹 전도를 통한 건전한 교회성장 - 서울중앙 교회를 중심으로”, D Min.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6년, 75-76.

## 제 5 장

## 한우리교회의 동반자전도사역 활성화방안

본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한우리교회의 동반자전도사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한우리교회의 지역적 환경, 즉 지역적 특성과 교회가 위치한 북현 2동의 지역적 필요 및 접촉점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한우리교회의 교회의 역사와 비전 및 목회 현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한우리교회의 동반자전도사역 활성화 방안으로 동반자 관계 맺기와 전도와 후속 양육 및 여정을 통해 동반자 되어주기와 동반자전도사역 평가와 보완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 제 1 절 한우리교회의 지역적 환경

## 1. 대구 한우리교회 지역적 특성

## 가. 대구의 현황과 종교적 특성

2013년 12월말 현재 대구광역시 인구는 2,524,890명으로 2012년 12월말보다 2,676명(0.1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1,259,143명(49.87%)이고 여자가 1,265,747명(50.13%)이며, 연령별로는 15 - 64세가 전체 인구의 47.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밀도는 2,857명이다. 총 세대수는 960,265세대로 2012년 대비 11,613(1.22%)세대가 증가하였다.<sup>115)</sup> 이처럼 대구광역시는 인구규모로 볼 때 전국 인구의 4.8퍼센트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3대 광역시에 속하며, 최근의 인구증가는 정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49년 8월 15일에 시로 승격되었던 대구시가 인구 250만을 포용하는 영남 제일

115)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실, *대구시정* (대구: 삼일사) 2014. 7

의 도시가 되는 데는 불과 45년이란 짧은 세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난 세월 대구시는 3·1운동을 비롯해 6.25동란과 피난민, 5·16군사혁명과 국가재건 등 한국현대사의 영욕의 발자취를 따라 성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시다. 대구는 옛 도시 대구 중앙통과 종로, 그리고 대구 남산 등 낯익은 구도시를 가지고서 성장하였다. 특히, 경북대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북현동, 산격동 일대의 에스러운 분위기나 대구가 가톨릭의 상징인 교구청 등은 다같이 이곳이 예사로운 고장이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대구를 대구되게 하는 명물 약령시와 16개나 되는 국공립사립대학교, 영남불교의 본찰인 동화사, 은혜사 등의 불교사찰 196매와 대구가톨릭대교구(41개 교회당) 그리고 1000여 개를 훨씬 웃도는 개신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영남의 정신문화 예술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더구나 대구의 영적 상황이 토착적인 불교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전체 인구 대비 기독교인의 숫자는 4퍼센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sup>116)</sup>

대구·경북 지역은 종교적 특수성이 타 지방과 구분될 정도로 다양한 종교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 즉,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불교가 전성을 이룬 지역이며, 샤머니즘을 비롯한 토속적인 원시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고, 성리학의 발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영남학파의 추로지향(鄒魯之鄉)이며, 동학사상의 발상지이기도 하다.<sup>117)</sup> 한 지역사회가 독특한 자기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자기지역 중심주의를 드러낼 경우에는 지역의 자기 정체성을 강화시켜주는 독특한 종교적 지형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지역 중심주의가 강했던 전통사회에서는 그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고 강화시켜주는 독특한 종교지형(a religious topography)이 있기 마련이다. 종교지형은 마치 지형적 특성처럼 한 사회의 종교적 문화를 특성화시켜주는 구조를 지칭한다. 아울러 이런 종교지형의 분석은 그 지역의 특이한 사회적 성격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sup>118)</sup>

이와 같은 종교지형이 말해주듯이, 대구·경북지역은 유교와 불교의 종교적 전통이 여타 지역보다 강하고 오래 되었으며, 천주교와 개신교의 보수성이 아주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중심 종교의 표상은 폐쇄성과 단절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116) 이상윤, “대구의 신도시 상인동 목회현장을 가다.” *빛과 소금* 1996년 3월호

117) 석창훈, “종교 인프라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연구: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005년 17집, 153.

118) 박승길, “대구의 종교지형과 지역정서 -일본종교 유입과정에서 나타난 종교지형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4년. 883-884.

리한 종교별 인구 편차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대구 경북 종교인구 및 분포비율<sup>119)</sup>

구분		전체 인구	종교 인구	불교 인구	개신 교	천주 교	유교	원불 교	대순 진리회	천도 교	대종 교
전국	천 명	44,553	22,597	10,321	8,760	2,950	210	86	62	28	7
	%	100	50.7	23.1	19.6	6.6	0.4	0.1	0.1	0.06	0.02
대구 광역시	천 명	2,445	1,285	811	284	165	4	1,9	5,2	1	0.3
	%	100	52,5	33,1	11,6	6,7	0,1	0,08	0,2	1,2	0,4
경상 북도	천 명	2,672	1,303	829	327	104	25	2,4	2,8	1,2	0,4
	%	100	48,7	31	12,2	3,8	0,94	0,09	0,1	0,05	0,02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종교별 인구편차배경은 대구, 경북 지역 종교문화의 특수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 먼저 대구, 경북 지역의 불교 인구가 여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점은 대구, 경북 지역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래 한국불교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맺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 경북 지역에는 수많은 사찰이 창건되고 훌륭한 고승을 배출하였으며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sup>120)</sup>

이러한 대구 경북지역 종교지형은 이 지역이 보수성으로 나타나는데 역사적으로 근대에 5, 6 군사 정부에서부터 일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정치사회적 보수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하여 5, 6공 군사정권기라고 할 수 있다. 몇 가지 두드러진 역사적 사건이 이전에도 이 지역에서 발생하였지만 이전의 보수성과 다른 대구·경북만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는 지역 패권주의적이고 권력 유지를 위한 보수성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119) 통계청 1995년 인구주택 총조사 재구성한 것이다.

120) 석창훈, "종교 인프라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연구: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245-262.

형성되고 유포되었다. 즉, 전국적인 상황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친일, 친미, 그리고 반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의 보수성이 해방 후 미군정기와 이승만 정권기에는 친미주의와 반공 이데올로기로 집중된 보수성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박정희 정권기에 들어서 오늘날 소위 말하는 TK정서에 바탕한 호남배척 등의 배타적인 권력보수가 등장하였고 이어진 군사 정권기에 이것이 더욱 강화되어 이 지역민들에게 내재화되었던 것이다. 한 마디로, 지역 패권주의적인 배타적 보수성과 정치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권력보수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121)</sup>

#### 나. 북구 복현 2동의 특성

대구의 7개 구 중에서도 북구는 경북·중앙·구마·88올림픽 고속국도 등이 서로 연결되어 타 도시 간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의 요충지이고, 경북대, 대구보건대, 영진전문대 등 양질의 교육시설과 오페라하우스, EXCO, 북구문화예술회관, 청소년회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위치하여 교육문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3공단과 검단공단 그리고 전국 최대의 물류단지인 대구종합유통단지가 관내에 위치하여 생산물류 도시로서도 손색이 없으며, 칠곡 및 동서변 지구의 택지개발에 이어 칠곡4지구, 매천, 금호·사수지구 등에 대한 택지개발과 도심취약지에 대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어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기반 구축으로 향후 대구북부권의 중심지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sup>122)</sup>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한우리교회가 위치한 복현 2동은 28개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현재 약 9,500세대 2만9천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금호강을 경계로 동구와 접하고 있고, 13개의 초, 중, 고, 대학이 있는 북구의 대표적 학원촌이며 동시에 성보재활원 등 3개 사회복지시설 등 많은 업무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큰 마을이다. 또한 동북로, 공항로, 검단로 등 3개 주요 간선도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공항교를 통한 대구공항의 북구 진입의 관문기능과 대구종합유통단지의 주 진출로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매우 중요한 기능을 지리적으로 담당하고 있다.<sup>123)</sup> 대구의 이러한 종교적 지형의 특징과

121) 정태식, “근 현대 대구·경북지역 기독교의 보수성에 대한 일고찰,” *사회과학 탐론과 정책*, 제2권 1호 2009년 4월, 1-25.

122) 대구광역시북구 홈페이지. [http://www.buk.daegu.kr/new\\_pg/content.php?pc=405](http://www.buk.daegu.kr/new_pg/content.php?pc=405).

123) 대구북구동주민센터,

[http://dong.buk.daegu.kr/about/sub1\\_1\\_1.html?d\\_code=bokhyeon2](http://dong.buk.daegu.kr/about/sub1_1_1.html?d_code=bokhyeon2)



이 지역의 보수성과 배타적인 지역적 특징은 이후 영적 동반자전도 사역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지역 못지않게 사회문화적, 관계적, 영적동반자전도 사역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아울러 북구 복현 2동의 서민지역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도도 사회문화적 관계를 맺는데 참고해야할 점이었다.

#### 다. 대구시민의 정서

한 지역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지역안에 특히 대도시의 경우 여러 가지의 특징과 정서들을 공유하고 있는 면이 많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민의 정서를 논하는 것은 이들을 사랑하고 복음의 좋은 접착점을 삼고자 함이다. 아울러 본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며 이러한 주관적 판단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오랫동안 목회해온 목회자들의 조언들도 참조하였다.

대구 지역의 정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수적이라고들 말한다. 또한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전통을 중시하며 조상의 얼을 이어받고 가부장적인 분위기이다. 예부터 이곳에서는 왕족과 큰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최근, 우리의 근,현대사를 보더라도 이곳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 만큼 대구사람들은 리더십이 있고 지역사람들끼리 푹푹 묻치는 지역성도 강한 것 같다. 그러나 심금이 깊어 꾸준하게 바위에 새기듯 신앙도 새기면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대구는 보수적이다 보니 신앙적인 면에서도 보수적인 면이 그대로 드러나 말씀중심적인 설교를 좋아하며 교회도 대구의 대표적인 교회들을 보면 말씀중심적인 교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성향이 지나칠 때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면에서 있어서 배타적인 면도 많아서 집단이나 모임 등의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면 왕따를 당하기가 쉬운 면도 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고집이 강한 편이며 공격적인 것이나 비판적인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드러우면서도 자기의 주장이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다. 때문에 설교에 있어서도 남이나 다른 지역과 비교한 것보다 자신들을 세워주며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를 좋아하는 것 같다.

대구의 사람들은 의리가 강해서 자기편이 되면 배반하지 않으며 충성스러운 면이 강하다. 그러나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마음을 여는데 쉽지 않다.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대구에 이주하여 이웃을 새로 사귀며 친구가 되는 것은 다소 어렵다. 교회 일에 있어서도 한번 헌신하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바쳐 충성스럽게 일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능을 인정해주며 리더십을 위임해줄 때 더 신이 나 잘하는 편이다. 동역자 의식이 강하여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한 번 사이가 안 좋아지면 합리적인 타협보단 명분과 명예를 더 중시하는 것 같아 맘이 맞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분열이 쉽게 우려되는 면이 있기도 하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서로가 나서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일이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확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며 안 되는 부분만 도와주면 좋아한다. 어느 지역이나 지역적 정서나 사람들의 성향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좋은 긍정적인 면을 살려주고 단점을 복음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준다면 좋은 접착점이 될 수도 있다. 대구의 이런 지역적 특성이나 정서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이곳은 오랫동안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성장하기 어려운 곳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런 점을 잘 감안하여 이들의 진정한 영적인 친구가 되어준다면 이곳에서도 좋은 열매를 기대하리라 본다.

## 2. 북현 2동의 지역적 필요

한우리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지역적 필요를 알아보려고 할 때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북현 2동을 중심으로 반경 일반 승용차량으로 10분 거리 내외의 분위기를 보면 이곳은 경북대학교가 이웃동 산격3동에 위치해 있어 젊은 대학생층이 많이 활동하며 학교기숙사를 비롯 인근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산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통계연보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말 현재 북현 2동의 평균 연령이 38.2세로 대구광역시의 다른 구나 동의 평균연령에 비해 5 - 6세정도 낮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북현 2동의 지역적 필요를 알아본다.

첫째로, 자녀교육열이 높다. 성보학교와 같은 특수학교 한 곳을 비롯해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가 5개 고등학교가 4개 전문대학이 1개가 이곳 지역에 있다. 또한 5개의 유치원과 4개의 어린이집도 있다. 이들 교육기관 중에서 특히 영진전문대는 3년 연속 취업률이 전국 전문대학중에서 가장 높은 전문대학으로 산학협력이 잘된 좋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상고등학교와 성광고등학교도 해마다 입시성적이 대구에서도 우수한 상위학교에 들어가는 전통있는 학교들이다. 성광중학교와 성화중학교도

전통과 학부모들의 평이 좋은 학교이다. 따라서 자녀들을 둔 젊은 부부나 중년의 부부들이 자녀교육 때문에라도 이곳을 선호하는 지역이다. 때문에 다른 인근지역에 비해서 오래된 대단위 아파트가 많은 편이나 아파트 가격이나 전세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결코 낮지 않은 편이다. 전세구하기도 어려워 월세가 많은 편이다. 이것은 이곳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는 증거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우리교회가 위치한 상가의 건물도 대형 5층 건물인데, 대부분 학원이나 교습소가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며 이와 같은 학원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크고 작은 상가 건물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한우리교회는 이러한 지역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후 동반자전도를 실행할 때 자녀 교육이나 자녀독서지도나 학부모독서모임 등을 통해서 접촉점을 가지려 했다.

둘째로,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대구광역시에서 북구의 북현2동은 오래된 구 생활권이다. 가까운 곳에 경북도청이 있으며 김단동에는 김단공단이 있으며 전자관동 대규모 유통단지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2,30평대에 아파트에 살고 초 중 고등학생들을 자녀를 둔 40대의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서민 지역이다. 삶의 여유를 찾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자녀양육이나 학원비등 교육비의 지출이 많아 맞벌이를 하는 가정들이 많은 편이다. 평균 소득도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주변의 이웃들의 평균적인 삶의 질을 보면 먹고 자녀교육하고 집 한채 장만하기위해서 바쁘게 살다보면 주말도 없이 지내는 분들도 많다.

따라서 이곳 사람들에게는 복음과 교회의 역할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관념적이나 추상적이 아닌 복음이 사람들의 삶속에서 증거로 나타날 때 복음의 접촉점이 더욱 잘 일어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로 최근에 본 교회 성도 중에 과거에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된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를 다시 다니면서 신앙이 회복되니 삶의 경제적인 문제도 더 좋아지고 막혔던 물질 문제도 해결되니 더욱 교회를 잘 나오게 되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더 깊어지는 경험을 보았다.

셋째로, 상처 된 가정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 앞서 대구의 현황과 종교적 특성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곳은 유교와 불교의 성향이 예부터 강하여 가정의 분위기가 가부장적인 가정과 아버지의 권위가 강하다.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러한 지역적 성향과 가정의 분위기는 상당한 연관관계를 가져 주위 이웃들의 가정이나 저

회 교회로 인도된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가정이 깨지고 부부간의 갈등과 상처가 많고 이런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대구광역시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하거나 당하는 사례가 많다. 참고로 본 연구자의 아이들도 수도권에서 살다가 이곳에 이사와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곳의 교회들은 상처 된 가정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지역이다. 특별히 본연구자와 사모는 이렇게 깨어진 가정의 부부의 회복과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치중하였다. 그래서 한우리교회가 독서교습소나 교회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게 되고 집착점을 삼고자 하였다.

### 3. 복현 2동의 집착점

한우리교회가 위치한 복현 2동의 주민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필요를 앞서 살펴보았다. 이 지역의 필요는 자녀교육의 열이 높고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의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된 가정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우리교회는 첫째는 이 지역이 자녀교육열이 높은 것을 보고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많은 청소년들의 문제들을 보면서 지적인 교육중심의 현행교육의 보완으로 독서를 통한 입체통전적인 독서지도에 힘썼다. 입체통전적 독서지도란 좌뇌 중심의 사고 인지영역의 개발뿐만 아니라 정보화시대의 오늘날 필요한 영역인 우뇌중심의 감성과 인성영역을 함께 개발하는 좋은 독서방법이다.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예전에 스펙을 중요시하던 관행에서 점차적으로 개인의 창의성이나 종합적 사고능력을 중요시 하고 있는 추세이고 최근 국내 유명한 H대그룹에서 신입사원 채용 때 “조선시대 이후에 존경하는 한 인물에 대해 말하고 존경하는 이유를 써 라는 문제”가 출제된 점을 고려한다면 입체 통전적 독서지도는 이러한 창의적이고 종합적 사고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는 독서지도방법이 된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좋은 독서방법을 통해 지역의 우리 자녀들이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리더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좋은 독서지도방법을 통해서 집착점을 삼고자 하였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갈수록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살아지는 가운데 교회가 이들을 접촉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독서지도였다. 지금 한우리교회의 청소년

부도 처음 독서와 공부방을 통해서 접촉점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30세 이하가 57퍼센트이기에 교회에서 10명중 5, 6명은 30세 이하여야 한다는 말인데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30세 이하의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의 절반이 넘는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것은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이다.

접촉점의 두 번째로는 한우리교회는 본 연구자의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그들의 친구들의 학부모들을 자연스럽게 접촉함으로써 그들의 가정의 얘기들을 쉽게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복현 2동 지역이 특별히 경제적인 이유로 맞벌이 하는 가정이 많고 부모들이 그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아이들을 교회 공부방을 열어 돌보기 시작했다. 비록 영어와 수학선생님들을 통해서 과외 형태로 소규모로 시작하였지만 학부모입장에서는 교회를 신뢰하고 맡기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매개가 되어 학부모들과 계속적으로 접촉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가정에 깊은 얘기까지 듣게 되고 상담하게 되었다.

대부분은 가정의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많았다. 이런 갈등이 심한 가정은 부부가 별거하는 가정도 있었고 아내는 남편 모르게 외도를 하면서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별히 사모가 상담심리학을 전공하여 이러한 특수한 가정들을 상담하고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앞으로 부부세미나나 건강한 가정을 위한 워크샵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이러한 부부갈등이나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 계획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접촉점을 삼았던 것은 영적사역이었다. 앞서 기술했던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는 유교와 불교의 영향으로 우상숭배가 강한 지역이었다. 때문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3대사역인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이곳에서는 우상숭배의 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강한 곳이어서 더욱 치유하는 사역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었다. 귀신을 쫓고 아프고 병든 자와 마음의 상처있는 자를 치유하는 영적사역을 접촉점으로 삼았다.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으로 깨끗한 영적인 도구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였던 것 같다.

## 제 2 절 한우리교회의 교회현황

## 1. 한우리교회 역사와 비전

### 가. 역사

한우리교회(구, 좋은교회)는 2010년 2월 새빛교회라는 모 교회에서 성도 30명 정도가 나와서 개척한 교회이다. 새빛교회는 10여년 정도의 역사와 100여명의 성도와 장로 6명이 섬기는 교회이었는데, 새로 온 목사와 장로들이 마찰이 있어서 성도들이 교회를 나왔다가 이곳저곳에 흩어진 성도들이 교회개척에 뜻을 두고 모이게 되었다고 한다. 서울에서 부임하여 내려온 송00목사가 부임 후 젊은 집사들과 토론하면서 목사가 교회 미래방향에 대해 약속한 것이 2년이 지나도 목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평소 성도들의 불만거리가 되어오다가 문제가 불거진 사건이 있었는데 박00집사(50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선천적인 장애가 있었고 시장에 나가서 강냉이와 빵튀기를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목사가 따뜻하게 해주질 못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 이를 지켜본 다른 성도들이 목사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 영진전문대 앞 이층상가를 얻었는데 그곳은 스탠드바를 하다가 3년 정도 비워둔 곳이라 수리할 곳이 많았다. 매주 토요일에 성도들이 모여 칠골로 인테리어로 했던 곳이라 철근을 자르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청소하고 강대상도 직접 제작하는 등, 두 달 정도의 교회내부공사를 하였다. 여자집사님들이 헌금을 모아 3백만 원을 모아 공사비를 충당하였고 성도 중에 피아노를 기증하며 시설비 1천만 원의 이상의 시설비를 들여 교회의 내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 세달 정도를 주일은 외부의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예배와 새벽기도 모임은 자체적으로 모임을 가져오던 가운데 교회 안에 성도의 소개로 제주도에서 목회하였던 천00목사를 청빙함으로써 목사를 모시고 교회를 함께 할 수 있었다.

새로운 목사를 모시고 교회가 1년 정도 되었을 때에 교회내의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목사와 이00장로와 갈등이 교회 안에 두 파로 갈라지게 되고 목사는 절반 정도의 젊은 집사들과 교회를 나가게 되고 기존의 장로들과 일부성도들은 남게 되었다. 남아있던 장로들과 일부 남아있었던 10여명의 성도들은 새로운 목사를 모시기에 교회의 형편이 여유롭지 않자 경산 쪽에서 개척 목회를 하던 김00목사와 연결이 되어 작

은 개척교회 두 교회가 합해져 20여명의 성도가 다시 교회를 시작하게 된다. 두 번째 목사가 1년반 정도목회를 하시다가 목회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교회 안에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김00목사의 아버지는 경산 쪽에 2만평정도 땅을 사서 많은 빚을 지게 되어서 가족들과 김00목사도 아버지의 빚을 갚느라 성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사임하게 된다. 이렇게 한우리교회의 개척이야기는 슬픈 얘기이다.

두 명의 목사가 이런 저런 이유로 교회를 잘 세우지 못함으로써 성도들의 마음의 상처가 많은 교회이었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어려운 교회 상황에서 2013년 1월에 성도 세가정이 있을 때 오게 되었다.

#### 나. 비전

본 연구자는 과거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주말마다 지역사회에 나가 전도를 하면서 지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전도를 하면서 내 자신이 좀 더 훈련되어졌으면 하는 갈증을 느끼고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을 입학하게 되었다.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에서는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성장전략”이란 논문을 쓰면서 그동안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경험에 이론적 뒷받침을 하게 되었다. 교회를 다니긴 오래 다녔지만 훈련되고 양육되지 못한 과거의 본 연구자의 신앙상태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그저 나의 꿈은 세상 적이었으며 세상 친구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이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의 소명을 받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주셨다. 선교대학원을 졸업할 무렵 총회 세계선교회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선교사허입을 마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학을 계속하게 되었다. 신학을 계속 공부하면서는 하나님께서 제게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다.

또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가장 큰 변화를 주었던 말씀은 “이 천국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이다.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을 직장에서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또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천국복음의 전파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현과 마지막 때 하나님나라의 완성에 있음을 생각한다. 이제 까지 짧은 한국의 복음의 역사속에서 이렇게까지 한국교회를 성장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는 이 사명을 저희가 감당하라고 하신 것 같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 승천 하신지도 200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곳이 1만 2천 종족 중 3천 5백여 종족이 있다고 한다. 성경에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될 때 오신다고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준비하고 싶다.

이렇게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사랑하는 주님의 한 민족이 있음을 알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지 갈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해 오다가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이라는 조그만 이슬람 국가로 2005년부터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2009년 11월에는 첫 번째 사역의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리라 말씀과 함께 그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국내 목회의 뜻을 주시고 지금껏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왔다.

이제는 주님께서 마지막 저희에게 명하신 세상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마지막 명령을 실천하며 살고 싶다. 그동안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한다. 이제 새롭게 대구에서 한우리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남은 나의 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한우리교회를 세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헌신된 제자가 되고 싶다. 아울러 우리는 또 다른 많은 제자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저희의 년대와 거주를 정하셨기에 비록 언어와 문화가 다를지라도 우리가 섬겨야 할 선교지에서도 주님의 헌신된 제자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헌신된 제자를 삼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싶다.

## 2. 한우리교회 현황



본 연구자는 처음 대구의 복현동에 소재한 동서교회(당시 교회명)로 2012년 11월 17일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게 되었다. 처음 왔을 때의 상황은 30명 정도의 성도가 있었던 교회는 분리돼 한 달 전부터 당시 담임목사였던 김00목사와 성도들 중 절반 정도가 목사를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 상황이었고 남은 성도들 절반은 교회를 떠나간지 한 달 정도 지난 상황이었다. 그래서 남은 성도들은 세 가정이 남게 되었는데 장로 한 가정과 권사 한 가정과 안수집사 한 가정이었다.

이렇게 세 가정으로 시작하였다가 2013년 1월 30일 이사하기 전에 권사 한 가정도 떠나고 그 해 4월 다른 장소로 교회를 이전할 즈음에 장로 가정도 떠나게 되어 안수집사 한 가정만 남게 되었는데 그 가정은 아내와 이혼 한 상태에 있는 가정이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면 떠났던 성도들도 돌아올 줄 기대했지만 떠났던 성도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그해 5월 안수집사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그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되고 목사와 사모가 직접 전도하여 지금은 성도 15명 정도가 예배드리고 있다. 그렇지만 처음 안수집사 가정을 제외하곤 모두가 전도하여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믿은 지 1 - 2년 된 초신 자들이다. 이제까지는 목사 사모가 전도해 왔지만 이제 양육도 받고 소그룹목장모임을 하면서 삶도 자연스럽게 나누고 기도도 한다. 그래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여 소그룹목장모임에 초청하려 준비 중에 있다. 이제까지의 한우리교회 예기는 주로 목사 사모가 한 일이 대부분이라면 이제 적은 성도들이지만 성도들이 직접 써 내려가야 할 단계이다.

### 제 3 절 한우리교회 동반자전도사역 활성화 방안

한우리교회 동반자전도사역을 전개함에 있어서 앞서 논의해 온 바와 같이 동반자전도는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이고 관계를 맺고 난 후에는 전도와 후속 양육과 여정을 통해서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동반자전도사역 활성화 방안도 이와 같은 동반자 관계 맺기와 전도와 후속 양육과 여정을 통해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을 중심으로 제시 하고자 한다.

## 1. 동반자 관계 맺기

동반자 관계 맺기는 먼저 사회문화적인 상황을 연구한 다음 사회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회문화적인 접근 이후에는 접촉점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면서 동반자가 되어줄 때 전도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 가. 사회문화적 접근

동반자전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느 지역이나 전도대상자의 필요와 접촉점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우리교회는 지역조사를 통한 이 지역의 필요가 자녀들의 교육과 가정의 회복에 있음을 알고 자녀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독서교습소를 운영하고 가정을 접촉하기 위해서 동우회모임을 나가게 되었다.

첫 번째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통해서 사회문화적 접근을 하였다. 2012년 대전에서 사역할 때 본 연구자의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가 초등 5학년, 4학년 때의 일이었다. 해외에서 선교하다가 들어온 이후 한국에서 아이들이 적응하고 학교공부를 따라가기 위해서 한국어 공부를 무던히도 힘썼던 기억이 있다. 그런 가운데 아이들에게 한국어로 된 좀 더 많은 독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사사 청소년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사사학교의 리더스쿨과정을 알게 되었다. 사사학교의 리더스쿨과정은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초등학생대상의 독서프로그램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서 본 연구자가 독서에 관심을 갖게 되어 사사 청소년문화원에서 시행했던 독서 지도사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2013년 대구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독서 세미나도 열리게 되었고 세미나 후에는 학부모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되어 9개월 정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독서모임을 하게 되었다. 처음 7명의 학부모들과 좋은 책들을 선정하여 2주에 한 번씩 모여 책을 읽고 책의 주제에 맞게 토의 토론하며 아울러 관계가 가까워지자 점점 더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독서모임은 발전되어 나중에는 가족들과 등산과 야유회모임도 갖게 되고 교회에 와서 좋은 영화도 함께 보게 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어떤 아빠의 경우는 교회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한다고 아예 관계를 끊어 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학교에서 독서세미나를 시작할 때는 이미 교장 선생님과 협의하여서 세미나를 열었는데도 불구하

고 중간쯤 진행하다가 “강사가 목사의 신분이다”는 이유로 학교의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반대하여 도중에 중단하기도 한 경험도 있다. 대구지역의 보수성과 배타적인 면을 경험하고 알게 되기도 하였다.

대구에서 한우리교회를 섬길 때는 처음부터 교회부설 작은 독서교습소를 열어서 초·중등 아이들을 대상으로 독서지도를 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아이들은 모집되지 않고 있어서 계속해서 독서교습소의 월세만을 내고 있다가 많은 갈등도 겪었다. 그런 가운데 2014년 여름 모 선교단체가 주관한 아이들을 위한 캠프에 본 연구자의 둘째와 셋째 아이가 전도한 친구들 다섯 명과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캠프 후에는 이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독서 수업이 진행되게 되었다. 이 독서수업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아이들이 4명이 되고 두 가정이 나오게 되었다. 대구광역시에서 북구 북현 2동 지역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8개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현재 약 9,500세대 2만 9천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13개의 초, 중, 고, 대학이 있는 북구의 대표적 학원 촌이다. 따라서 독서를 통한 접촉점은 이 지역의 사회문화적 필요와 맞는 것 같다. 다만 초기 교습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독서의 주 대상을 초등학생에다가 포커스를 둔 것이 시행착오가 있어서 나중에는 이 지역에 맞게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두 번째 동우회 모임을 통해서 사회문화적 접근을 하였다. 요즘은 대도시라면 어디를 가나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대구에서는 프리테니스동우회 활동이 활발하다. 프리테니스동우회에 가입하여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한 운동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동우회 회원들과 좋은 친분관계를 쌓아가고 있다. 야유회모임이나 각종 회식자리를 통하여 삶의 에기도 나누며 들어주기도 한다. 이번 2014년 12월에는 망년회 회식자리로 독서교습소를 빌려주며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모든 회원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장소를 빌려준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다. 교회가 갈수록 사회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현실에서 이웃과 소통하며 서로의 공감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 생각된다. 회원들 중에서도 미래의 성도들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또한 이렇게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들을 이용하여 이웃들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중에는 반드시 인위적인 만

남이 아니라 우연히 만난 분들도 가끔 있다.

2014년 1월초에는 우리 교회에 박00씨가 오게 되었다. 이 사람은 처음 믿음생활을 시작하신 분으로 스스로 본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다. 그런데 몇 주 나오신 후로는 서로가 관계가 맺어지자 주일 오후 하루는 오랜 시간을 서로가 교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집에서 꽤 오랜 시간을 박00성도를 기다리게 되고 급기야 교회에 직접 찾아 와서 화가 많이 나셨는지 화를 많이 내고 박00성도를 데리고 가 버리셨다. 이 일을 계기로 오히려 죄송하다는 교회 측의 사과와 함께 남편과도 더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었다. 그래서 가정심방도 자주 찾아 가게 되고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병원심방과 함께 이후 더욱 가까워지게 되어 함께 식사도 하며 산보도 하며 다른 도시로 여행도 함께 갈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이번 성탄절에는 아내 박00씨가 세례를 받게 되어 꽃다발을 주리 예배에 참석하게 될 것 같다. 교회에 나온 지 1년도 안 되는 초신자의 경우에도 남편에게 영적 동반자로서 친구처럼 상대를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니 마음 문을 열고 가까워진 관계가 쉽게 형성되었던 같다.

또한 여름 방학 때는 독서교습소에서 만난 어떤 학부모의 경우에는 기존 신자인데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여 그동안 교회가 멀어서 가까운 곳으로 새벽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본 교회에 새벽기도를 나오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자녀교육으로 서로가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가 교육에 대한 견해에 공감을 느끼면서 가까워진 관계이다. 그러다가 식사교제도 부부가 함께 나누게 되고 사업을 하는 공장도 방문하게 되고 새벽 기도 때는 서로의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기도하며 더욱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천해주는 세미나도 다녀오시면서 은혜도 받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장의 예배도 드려줄 것도 요청한다. 아직은 교회를 옮기질 않았으나 집 가까운 교회로 옮기시려는 계획과 함께 우리 교회로 나오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

한편, 교회공부방 영어 선생으로 오셨다가 얘기를 나누던 가운데 짧은 시절 3년 정도 교회를 나가다가 남편의 죽음으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던 가운데 교회를 정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예비 된 영혼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다시 신앙생활을 권면했더니 바로 그 주간부터 주일을 지키며 양

육도 받고 기도생활도 다시 시작하는 성도도 있었다. 수학 선생도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는 처음이지만 조금씩 마음이 열려가며 미래 성도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아이들 친구 엄마들과 좋은 이웃으로 지내고 있다. 집에서 저학년들은 독서지도도 해주고 아이들은 항상 좋은 친구들이 되어서 하기에 지내다가 방학이 되면 안 믿는 친구들도 신앙캠프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여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교회로 나온 경우도 있다. 2014년 여름 캠프에 이어 이번 겨울 캠프에도 아직 믿지 않은 친구들과 함께 두 번의 신앙캠프에 참석하여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는 미래성도들이 십여 명이 있다. 본 연구자는 처음부터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선교적 교회는 그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문화적 상황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가”라고 자문한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상황에 맞게 자신의 모습을 갖추기에, 문화적 상황은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sup>124)</sup> 그러나 관계 맺기를 할 때는 항상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영혼을 만나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연히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교회 개척의 과정을 통해서 겪은 가운데 포스트모던시대 한국적인 교회의 상황가운데서 전도의 접착점으로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이웃과의 접촉 뿐 만 아니라 접촉이후 지속적인 이웃과의 좋은 관계 맺기가 중요함을 알았다. 이웃과의 음식대접과 이야기나누기를 통한 영적동반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동반자전도가 되리라 생각한다.

#### 나. 접촉점 활용하기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형태였고 이러한 형태가 관계 지향적인 동반자전도를 하기에 효율적인 구조이다. 이런 초대교회 가정교회 형태의 관계적인 모습이 오늘날 미국 휴스턴 서울침례교회가 지향하는 형태의 가정교회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미국 휴스턴 서울침례교회의 가정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단계를 4단계로 본다. 첫 번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관계를 맺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복장공

124) Michael Frost and Alan Hirasch, *새로운 교회가 온다*. 25.

동체에 초청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복음을 전하며 계속해서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 돌보는 것이다. 선교지에서 본 연구자의 가정집에서 개최할 때 동반자전도 전략의 일환으로 초대교회의 가정교회 형태를 연구하며 미국 휴스턴 서울침례교회의 가정교회 사역방식을 사역에 적용하여 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먼저는 전도대상자를 정하고 그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사회문화적 접근을 이용하여 관계 맺기를 한 다음에는 목장 공동체에 초청하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하며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곧바로 교회 성전에 데려와 주일 예배부터 드리게 하는 전통적인 전도방식보다는 성도의 가정을 오픈하여 친숙한 가정의 분위기에서 우리 이웃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하는 전도의 방식이 동반자전도를 하기는 좋은 방식이다. 그래서 한우리교회는 세상으로 전도하러 나아가기 위한 좋은 목장모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처가 있는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함을 알고 성도의 치유와 회복에 치중하여 사역하여 왔다.

우리가 목장모임에 초청하면 불신자가 한 두 번은 교회에 올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가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목장 모임에서 성도들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난 후, 서로의 기도제목을 확인하고 나누면서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처음 선교지에서 리더를 중심으로 두 명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들을 중심으로 믿지 않은 친구들이나 이웃을 품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목장 모임에 초대되어서는 반드시 전도대상자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도 식사와 교제는 중요하였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 이는 친밀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맞보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꼭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의 얘기를 들어주며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도와주는 것이다. 큰 도움도 좋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도 마음이 담겨 진실하게 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이웃들은 그런 우리의 행동에 감동해 한다.

이렇게 목장모임을 가정에서 모이며 접촉한다면 동반자전도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목장모임에 초청하고 나온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전도대상자가 목장모임에 나오면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삶의 에기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대화의 기술도 필요하며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한 삶의 간증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누구로부터 인정받으며 초청받는 일을 좋아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식사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지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정의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면 즐기는 동안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오픈해 나누기가 쉽다. 특히, 불신자들은 식사를 나누면서 마음의 문을 연다.<sup>125)</sup> 오늘날 사람들은 아주 고립되고 개인화되어 손 대접을 통해서 가정에서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전도의 좋은 접촉점이 가능하다. 특히, 목장모임과 같은 소그룹 모임에서 음식대접을 통한 친밀한 교제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식탁의 자리나 분위기에서 영혼을 살리는 대화는 복음에 초점을 맞춘 대화와 좋은 대화 기술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좋은 대화의 기술을 갖춘 사람은 사랑과 존중으로 사람들과 교제하며 대화를 계속 이어 나간다.<sup>126)</sup> 그래서 이제까지의 일방적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먼저 경청하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다.

또 영혼을 살리는 대화의 내용은 항상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목표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 대화상대가 되는 것이다.<sup>127)</sup> 따라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짧은 얘기로 구성하여 놓는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결국, 전도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만 열매를 거두려면 효과적인 이야기를 전달해야 한다.<sup>128)</sup> 신앙 여정을 압축하여 나의 믿음 이야기 속에서 믿지 않는 이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 만한 한 가지 핵심을 뽑아내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오늘날 관계가 단절된 한국적상황과 포스트모던시대에 효과적인 전도의

125) Michael Green, *알파코스 포스트모던 시대의 전도*, 유용국 역 (서울: 서로사랑, 2004). 252.

126) Richard Peace, *영혼을 살리는 대화*, 164.

127) Ibid.

128) Bill Hybels,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149.

방법이겠다. 그래서 동반자전도는 사회문화적 접근과 관계 맺기뿐만 아니라, 목장에서 효과적인 이야기의 전달이 중요한 요소이다.

때문에 관계를 맺는 동반자전도의 활성화 방안의 첫 번째 단계에서 접촉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문화적인 접근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은 후에는 접촉점을 잘 활용하여 가정교회의 목장으로 인도하여 영적인 가족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반자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족으로서 진정한 가족공동체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접촉점을 활용하고 목장에서의 경험이 잘 이뤄진다면 전도와 후속 양육이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있다.

## 2. 전도와 후속 양육

앞서 말한 가정교회형태는 가족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목장공동체와 은혜로운 주일예배와 체계적인 삶 양육공부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가정교회 형태를 유지하는 세 가지의 축이다.<sup>129)</sup> 이제, 목장에서의 삶 나눔과 삶을 함께 살아온 성도는 전도와 후속 양육이 필요하다. 동반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함께 하며 상대가 신앙을 잃지 않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후속 양육을 통해서 새롭게 신자가 된 이들은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에 헌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도 후 효과적인 양육이야말로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시키는 동반의 과정이다.

가정교회에서 삶 공부는 철저히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삶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배우게 되고, 배운 말씀을 생활의 터전과 목장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삶 공부는 국제 가정교회 사역원 차원에서 제공되기도 하지만, 각 교회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이 가정교회에서는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삶 공부를 제공한다. 삶 공부는 삶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생활하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한우리교회에서는 삶 공부를 통해 지적인 제자훈련과 더불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제자훈련을 시킨다. 기본 다섯 가지 삶 공부가 준비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세 번째 단계인 새로운 삶까지 진행해 왔다. 한우리교회는 전도 후 효과적인 양육을 위해서 이러한

129) 국제 가정교회 사역원, *제 68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강의안*, 2010, 25요약.



가정교회 형태의 양육과정을 적용하였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생명의 삶(13주 과정)

- (1) 교재는 요단 출판사에서 출간하고 표준 새 번역을 사용한 *생명의 삶*이다.
- (2) 불신자가 목장에 나온 이후 어느 정도 적응한 다음 예수를 처음 믿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다.
- (3) 오래 믿는 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신앙생활을 정리시켜 준다.
- (4) 담임 목사가 영혼 구원에 동참하기 위하여 이 코스는 반드시 담임목사는다.
- (5) 이 코스를 통하여 담임 목사의 신앙관과 목회 철학이 전달된다.

나. 확신의 삶(7주 과정)

- (1) 교재는 랄프 네이버 목사가 저술한 6주짜리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NCD출판)이다.
- (2) 이미 수료했고 시간 낼 수 있는 사람이 인도하므로 1:1 멘토링의 의미가 있다.
- (3) 목자 목녀가 확신의 삶을 인도할 때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된다.
- (4)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배우는 성도와 가르키는 성도 간에도 동반자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다. 새로운 삶(13주 과정)

- (1) 교재는 NCD에서 출판한 *새로운 삶* 시리즈의 제3권 *실천*이다.
- (2) 이 코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리스천 공동체를 배운다.

라. 경건의 삶(13주 과정).

- (1) 교재는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생명의 말씀사*)이다.

(2) 소그룹으로 모여서 내적 치유를 해주고 영성을 개발해 준다.

(3) 원활한 목장 모임 인도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 교재는 블랙가비 목사 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요단 출판사 출판)이다.

(2)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발견하고 목자로서의 자질을 갖춘다.

(3) 목양을 앎는 사람에게는 지적인 공부가 될 수 있으므로 목자나 대행목자 임명 받을 사람 내외만 수강하게 한다.

(4) 성숙한 목자에 의해서 1:1로 지도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 사람이 모여서 공부할 수도 있다.

바. 기타 양육과정으로는 말씀의 삶, 부부의 삶, 부모의 삶, 목자 목녀의 삶, 예비 부부의 삶, 기도의 삶, 가정교회원리와 실제 등이 있다.<sup>130)</sup>

이와 같은 가정교회 형태 양육과정<sup>131)</sup>에는 본 연구자가 연구한 동반자전도와 관련하여 하나의 비슷한 흐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과정의 첫 번째 생명의 삶 과정에는 불신자가 목장모임 참석이후 담임목사가 인도하면서 구원과 전도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고 두 번째 확신의 삶 과정에는 구원의 확신 이후 좀 더 새 신자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도록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가 목장의 구성원인 목원을 일대일로 멘토링 하는 것이다. 이렇게 멘토링하면서 멘토가 되어주는 삶이 동반자의 삶이다. 이 양육과정에서 모든 것을 교역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양육 받은 평신도가 다른 새신자의 동반자가 되어 주는 것이다.

세 번째 새로운 삶 과정에는 특별히 새로운 삶을 통해서 목장이 어떤 곳이며, 목장에서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불신자를 섬기며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소그룹으로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며 첫 번째 생명의 삶의 단계는 담임목사의 강의에 의존한다면 소그룹의 형태를 가미

130) 국제 가정교회 사역원, *제 68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강의안*, 2010. 26-27요약.

131) 이하 요약은 기본적으로 가정교회가 제공하는 양육 과정을 본 연구자가 연구하고 적용하여 제 요약한 것이다.

하여 인도자와 양방향식 소통을 하면서 진행한다.

네 번째 경건의 삶 과정에는 인원 구성은 3-4명의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며, 모임 중에 한 번 이상은 발언을 하여 자신을 오픈 할 수 있도록 하며, 인도자 및 상호 구성원이 서로를 권면할 때는 간증이나 질문만을 사용하며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는 본인의 허락 없이는 비밀을 보장해 준다. 경건의 삶 기간 동안 두 명씩 기도 짝을 정하며 일 주일에 한 번씩 별도로 만나 1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나지 못할 때는 전화를 통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처럼 경건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웃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쌓을 수 있는 훈련을 하며 영성훈련코스이다. 이 과정에서는 관계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단계이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과정에는 담임목사가 주로 맡되 목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목자를 만든다는 목표로 이뤄져 있다. 동반자전도사역의 리더와 동역자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단계이다.

동반자전도는 처음 영국에서 그 개념을 사용할 때 엠마우스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엠마우스에도 3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양육과정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동반자전도의 개념과 원리와 정신은 엠마우스 프로그램에서 배우되 한우리 교회의 양육과정으로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엠마우스 프로그램이 영국이라는 배경과 시기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에 비해 가정교회 형태는 이미 한국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도입하여 정착한 형태였고 모델들도 있었으며 함께 목회자들끼리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자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 하고 있는 가정교회 형태의 양육이 동반자전도의 원리와 개념과 그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동반자전도는 관계이고 양육이고 여정이고 소통이 중요하다. 오늘날 단절된 한국적 상황에서 가정교회 형태의 양육이 구원 이후 제자로서 훈련하고 여정을 통한 영적 동반자가 되어 주기에 가장 좋은 형태였음을 알 수가 있었다. 더욱이 같은 평신도가 다른 새 신자를 영적 동반자가 되어 양육도 함께 할 수 있기에 더욱 효과적이었다. 한우리교회에서도 지난 3년간 3번의 생명의 삶 과정과 2번의 확신의 삶 과정과 1번의 새로운 삶 과정을 마치고 이제는 다른 평신도 동역자에 의해서 다른 새신자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다.

### 3. 여정을 통해 동반자 되어주기

동반자전도가 지역교회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접근과 관계 맺기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와 같은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회적인 필요와 좋은 접촉점을 사용한다하더라도 진정한 동반자가 지속적으로 되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진정한 영적 동반자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여정이 필요하다하겠다.

본 연구자는 처음부터 영혼들의 진정한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 영혼구원하고 제자삼아 선교하는 좋은 교회를 세우고 싶었다. 하나님은 이런 본 연구자의 중심을 아셨는지 대구 한우리교회에 와서는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영적인 경험과 여정을 겪게 해주셨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자가 처음 대구 한우리교회에 왔을 때 세가정이 있었다. 한우리 교회는 처음 30여명으로 시작된 개척교회였다. 그러나 3년 동안 두 번이나 담임목사가 바뀌면서 성도들은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세가정이 남아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구로 이사하고 나서 얼마 안 되서 두 가정은 떠나가고 한 가정만 남게 되었다. 그것도 이혼한 가정이었어서 성도는 딱 한 사람만 남게 되었다. 대구로 담임목사가 새로 부임하면 교회분위기도 달라지면서 상처와 아픔을 가진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 줄 기대했지만 있는 성도들마저 떠나가 한 사람만 남게 되어 처음에는 많은 낙심과 좌절을 겪기도 하였다. 그렇게 남은 성도 한 사람과 우리 가족 5명이 남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로부터 지난 3년동안 하나님께서는 한우리교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영적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셨다. 도저히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의 꾸준한 간절한 기도와 금식으로 다시 주님 보좌로 나아오게 하시고,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앞장서게 하셨다.

한우리교회 성도들은 단번에 복음을 전하여 영접한 경우보다 3년의 짧은 목회경험에서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3년 혹은 2년 적어도 1년 이상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살수가 있었다. 이와 같이 동반자전도사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가 진정한 구도자로서 삶을

살고 제자로서 성숙하기까지는 함께 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함께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본 장에서는 한우리교회 동반자전도사역 활성화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우리교회의 지역적 환경과 한우리교회의 교회현황과 아울러 한우리교회의 동반자전도사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이제 그동안 한우리교회에서 동반자전도사역을 진행해 오면서 사역의 평가와 함께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4. 동반자전도사역의 평가와 보완

##### 가. 평가

본 논문 “지역교회에서의 동반자전도사역 활성화방안”을 마치면서 그동안의 한우리교회 동반자전도사역을 두 가지로 평가해보며 사역을 정리해 보고자한다.

첫 번째, 아쉬운 부분은 본 연구자는 사역현장에서 섬길 때 한 곳에서 오래 섬기지를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때문에 리더를 세우지 못하고 임상과 김중에 있어서 많은 한계와 부족함을 느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양한 지역에서의 경험들은 동반자전도방식이 더욱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해 주는 기회도 되었다. 교회는 전도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리더들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 목사 사모가 현장에서 전도에 치중하다 보면 교회의 리더들을 양육하고 재생산이 이루어지는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때문에 교회는 리더들을 세워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한다고 볼 때 리더들의 양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다.

두 번째는, 동반자전도로 사역할 때 좀 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부족함을 느꼈다. 동반자전도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섭리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역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날 예수님이 사역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있는 것을 찾고 있는 듯했다. 일상의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면서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우물가의 여인들처럼 허상을 쫓아 살아가는 듯 했다. 그러나

진리인 복음을 거부하며 외면한 시대에 살고 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시대문화도 허락하셨다고 본다면 오히려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의 문화를 역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말로 하는 전도방식의 시대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보여주는 전도방식의 시대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싶다.

#### 나. 보완

한우리교회 동반자전도사역을 두 가지로 평가해보며 사역을 정리해 볼 때 첫째 아쉬운 부분은 본 연구자는 사역현장에서 섬길 때 한 곳에서 오래 섬기지를 못했던 이유로 리더를 세우지 못했다는 점이였다. 본 연구자는 이제까지 아내와 함께 동반자가 되기 위해 힘썼지만 동반자가 함께 되어줄 동역자를 세우지 못했다. 따라서 동반자전도사역을 할 때 유념해야 할 점이라면 처음부터 좋은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어렵고 힘들고 붙여진 사람들을 그때마다 섬기고 돕다보니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고 훈련하고 세우셨던 것처럼 제자를 만들어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 동반자 전도사역을 효과적이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내가 먼저 동반자 전도사역 원리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동반자 전도사역 원리로 재생산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 함께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고 선교하는 교회를 이뤄 가야 할 것 같다.

두 번째는 동반자전도로 사역할 때 좀 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부족함을 느꼈다는 점이였다. 모든 하나님나라의 사역이 그렇지만 동반자 전도사역 역시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고 부활 후에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성령과 동행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때문에 우리들은 동반자전도로 사역할 때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일하시록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써야 할 것 같다.

## 제 6 장

## 결 론

본 논문은 “지역교회에서의 동반자전도사역 활성화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정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성장하지 않은 가운데 사회적인 단절과 대사회와 교회의 심각한 수준의 단절이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을 이미 살펴보고 또한 이러한 단절의 원인이 포스트모던 문화와의 연관해 있음을 알아봄으로써 한국사회 새로운 전도방법의 대안으로 관계의 회복과 여정의 필요와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동반자전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술하였다. 또한 이러한 동반자전도는 새로운 세대에 더욱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전도이라는 것도 역설하였다. 또한 동반자전도는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세속화와 종교다원주의의 시대상황 속에서 이웃과의 공감과 소통을 위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적 사역과 같이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의 관점에서 다뤘다. 이와 같은 동반자적 삶을 위해서 세상의 이웃들에 진정한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 제 1 절 요약

오늘날과 같이 한국사회에서 이웃과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이전 모던시대의 절대적인 질서들이 무너지면서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새로운 쌍방향적 인간관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이제까지 기독교적인 우위 시대에서 기독교의 근대의 절대성이 무너지면서부터 기존의 단회적인 선포방식의 전도방식 또한 많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더욱이 한국 교회만 바라보더라도 이제 교회는 사회의 거울이기 보다는 많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발미암아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사회의 거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있다. 사람들은 갈수록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너 나 할 것 없이 편리함과 함께 소외감을 가지고 산다. 이런 현대인들에게는 소통할 공동체 소그룹이 필요한 상황을 열거하면서 포스트모던 시대에 동반자전도가 효과적인 입을 기술한 바 있다.

또한 동반자전도가 포스트모던의 시대적 상황의 필요뿐만 아니라 이미 2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삶의 현장에서 사역하셨던 방식이었다는 것을 성경의 예화를 통해서 증명하려 하였다. 특히, 사역의 대상과 필요에 따라서 당시의 사회문화를 이용하여 동반자의 역할을 하실 때가 있으셨는가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맺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다. 니고데모의 경우는 영적인 접근을 통하여서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때도 있으셨다. 이와 같이 동반자전도는 성경의 예수님의 예화처럼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본을 보여주신 전도방식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동반자전도를 논함에 있어서 본 연구자는 타지키스탄이라는 타문화권에서 사역할 때 포스트모던 세대라 할 수 있는 젊은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한국으로 돌아와 사역할 때 젊은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까지를 섬기면서 지역과 대상에 따라 상황과 필요에 맞춰 다양하게 사역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과 대상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섬기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동반자전도방식이 어느 곳에서나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지 적용할 수 있는 전도방식이었다는 것을 사례들을 통해서 부족하나마 임상해 보았다.

처음에는 한국에 다시 돌아와 교회를 개척하려는 상황에서 앞이 안 보이는 막박함이 있기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 선교현지의 사회와 문화를 공부하며 그들의 필요가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가장 깊은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을 착안하여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동반자의 따뜻한 마음으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웃 영혼들에 대해 다가간다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한지 5년이 지난 지금 동반자가 되어 진정한 이웃의 친구가 되고자 섬겼던 지난 날 일들이 하나씩 생각나며 스쳐 지나간다.

특히, 용인 가정집에서부터 대전에서의 30명의 작은 개척 교회에서 섬기다가 대구의 어려운 상처 많았던 교회로 옮겨 다니면서 그때마다 사역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수고하고 애를 썼던 것에 비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



나 성과가 없어 보일 때는 힘든 시간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의 시간들 속에서도 놓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와 진정한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개척 교회시절 어느 지역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만난 사람들을 예비해주셨고 마지막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의 지역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나라의 완성과 확장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했던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것도 예수님께로 받은바 은혜가 컸기 때문이 아니었는지 실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 제 2 절 제언

추후 이와 비슷한 주제의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될 때 전도와 후속 양육을 통해 동반자전도의 동역자를 세우는 주제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제 3장 2절에서 다룬 예수님의 모델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예수님도 당시의 상황과 대상에 따라 이웃들의 영적인 친구, 동반자가 되어 주었듯이 오늘날 한국의 지역교회도 각각의 상황과 대상과 지역에 따른 다양한 동반자 전도사역에 대한 연구들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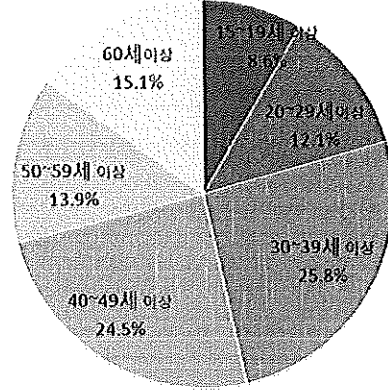
이제는 성경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은가 싶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면 시대를 초월하여 사역의 원리나 정신은 예수님의 사역 원리를 따르면서 오늘날 시대를 연구해야 함이 마땅하다. 결코 예수님이 죄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는 세상으로 성육신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제 동반자전도는 본 연구자의 삶의 부분이 된듯하다. 이제까지 선교지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일관된 사역 철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본 논문을 마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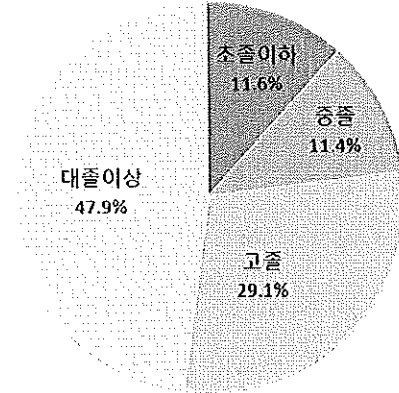
부록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연령대별 분포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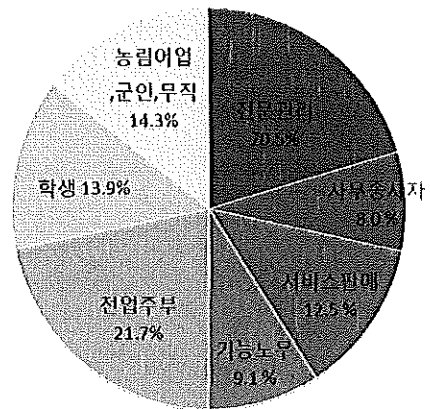
연령별	전체(%)	성별(%)	
		남	여
15 ~ 19 세	8.6	48.0	52.0
20 ~ 29 세	12.1	50.0	50.0
30 ~ 39 세	25.8	47.6	52.4
40 ~ 49 세	24.5	52.1	47.9
50 ~ 59 세	13.9	48.8	51.2
60 세 이상	15.1	48.9	51.1



교육정도	전체(%)	성별(%)	
		남	여
초졸이하	11.6	35.9	64.1
중졸	11.4	46.1	53.9
고졸	29.1	46.5	53.5
대졸이상	47.9	55.2	44.8



직업현황	전체(%)	성별(%)	
		남	여
전문관리	20.5	75.1	24.9
사무종사자	8.0	61.3	38.7
서비스판매	12.5	51.0	49.0
기능노무	9.1	75.3	24.7
전업주부	21.7	0.5	99.5
학생	13.9	55.3	44.7
농림어업, 군인, 무직	14.3	56.4	43.6



## 부록 2

## 부부세미나 프로그램구성표

주 일 예 배	김중원목사 남편과 아내의 역할 엡5:1	주수일장로 가정	김중원목사 예수구원	주수일장로님 자녀교육	(레) 소 감 문 쓰 기  교 회 탐 방
일 요 일 1-3	포크댄스, 결혼기념 생일 축하, 부부사랑메시지	섭김과 복종 -박일면장로 부부사랑메시지	세족식  부부사랑메시지	결혼서약 재갱신 자녀들과(비디오, 선물) (레)자녀에게 편지, 선물	
3-4	조이름,조구호, 조가,조그림만 들기, 발표	아내편지쓰기	단말 쓴말찾기		
내 용	부부의 성격이 해	장점을 발견하기 이해하기	부부대화,성/자녀 교육	가계분석	
강 사	평신도집사, 김중원	주수일, 박일면	이희범, 강미향, 김중원	안덕수, 김장로, 주수일	
교 제	피플퍼즐세미나	강의안	강의안		

## 참고 문헌

### 1. 국내서적

- 권계화. “우리나라 이혼율자료에 대한 특성분석.” *여성연구논총* 제26집, 2011.
- 국제 가정교회 사역원. *제 68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강의안*. 2010.
- 김남식. *예수님의 전도원리 동행전도학*. 인천: 한국전도학연구소, 2015.
- 김선일. *교회를 위한 전도가이드*. 성남: 세세대, 2012.
- 김선일. *전도의 유산 오래된 복음의 미래*. 서울: SFC출판부, 2014.
- 김선일. “선교적 교회의 패러다임에서 조망하는 교회학교 사역”. *복음과 선교* 17권, 2012.
- 김찬호. *모멸감*.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4.
-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8.
- 김충현. “소그룹 전도를 통한 건전한 교회성장 -서울중앙 교회를 중심으로-”.  
D Min.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5.
- 대구광역시 기획정책관실. *대구시정*7. 2014.
- 문승진. *통하는 전도*. 서울: 도마의 길, 2009.
- 미메시스. *신세대: 내 멋대로 해라*.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3.
- 박영철. “가정교회 운동의 목회적 가치와 철학”. *목회와 신학* 2007년 11월호.
- 박승길. “대구의 종교지형과 지역정서 -일본종교 유입과정에서 나타난 종교지형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2004.
- 방선기. *대중문화도 기록해질 수 있는가?*.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9.
- 석창훈. “종교 인프라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연구: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005년 제17집.
- 송호근. *한국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서울: 21세기북스, 2005.
- 현대경제연구원.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공적 신뢰 회복을 위한 국가시스템 개조가 필요하다”.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경제주평* 2014년 14-21호.

- 신국원. *문화이야기*. 서울: IVP, 2002.
- 성서유니온선교회. *엠마우스 소개서: 믿음의 길*. 미간행물.
- 성서유니온선교회. *엠마우스 믿음의 길*. 미간행물.
- 엄기호. *단속사회*. 파주: 창비, 2014.
- 엄익란. *무슬림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파주: 도서출판 한울, 2009.
- 유낙환. “정보화 시대의 대중문화에 대한 기독교문화 연구”.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4.
- 이원규. *종교의 세속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이상만. *오이코스 전도이야기*.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 이정석. *세속화시대의 기독교*. 서울: 이레서원, 2000.
- 이정석. “문화와 목회”. 강의안: Fuller Theological Seminary, Winter 2010.
- 이상윤. “대구의 신도시 상인동 목회현장을 가다”. *빛과 소금*. 1996년 3월호.
- 정태식. “근 현대 대구·경북지역 기독교의 보수성에 대한 일고찰”.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2권1호, 2009년 4월.
- 조성돈, 정재영. *그들은 왜 카톨릭교회로 갔을까?*.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7.
- 조성돈. 목회페러다임, 60년의 간격과 미래. *목회와 신학* 2005년 8월호.
- 이동연. *대중문화연구와 문화비평*. 서울: 문화와 과학사, 2002.
- 탁석산.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서울: 창비, 2009.
- 함인혜. “세대갈등을 넘어 세대공존을 위해”. *계간사상*, 2000년 12월호.
- 황동일 외. “新세대, SIN세대, 후세대 그리고 자본주의”. *신세대론: 혼돈과 질서*.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4.
- 정양모 역. *디다케: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본도출판사, 2006.
- “신세대 대학생 동거족, 원룸 얻어 함께 살아”. *동아일보*, 1998. 9. 21.
- “전화인간”. *중앙일보*, 2004. 5. 12.
- “한국인 어려울 때 의존할 사람 없다”. *시대일보*, 2015, 6, 5.
- 한국 브리태니커, “대전광역시”,

## 2. 번역서적

- Banks, Robert.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상*. 장동수 역. 서울: 여수문, 1991.
- Barrs, Jerram. *전도, 예수님께 배우다*. 이성우, 김영미 공역. 서울: SFC, 2010.
- Beckham, William A. . *제2의 종교개혁(The Second Refonnation)*.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도서출판NCD, 2000.
- Branick Vincent.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The House Church in the Writings of Paul)*. 홍인규 역. 서울: UCN, 2005.
- Cornish, Edward S. *사이버충격*. 이관웅 역. 서울: 엘테크 출판, 1997.
- Emerick, Yahiya .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이슬람*. 한상연 역. 서울: 삼양미디어, 2012.
- Everts, Don and Doug Schaupp. *포스트모던보이 교회로 돌아오다*. 장혜영 역. 서울: 포이에마, 2008.
- Finney, John. *새로운 전도가 온다*. 한화룡 역. 서울: 비아, 2014.
- Frost, Michael and Alan Hirasch. *새로운 교회가 온다*. 지성근 역. 서울:IVP, 2009.
- Green, Michael. *알파코스 포스트모던 시대의 전도*. 유용국 역. 서울: 서로사랑, 2004.
- Hybels, Bill.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정성묵 역. 서울: 두란노, 2006.
- Long, Jimmy. *새로운 청년사역이 온다*. 신현기 역. 서울: IVP, 2007.
- Negroponte, N. *디지털이다*. 백옥인 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 Newbigin, Lesslie. *다원주의 사회의 복음(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허성식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8.
- Peace, Richard. *영혼을 살리는 대화*. 심연희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9.
- Pohl, Christine D. *손대잡*. 정옥배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02.
- Richardson, Rick.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 노종문 역. 서울: IVP, 2008.
- Rifkin, Jeremy. *공감의 시대*. 이경남 역. 서울: (주)민음사, 2010.
- Wood, Christine.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임혜진 역. 서울: IVP, 2005.

## 3. 외국서적

- Barakat, Halim. *"The Arab Family and the challenge of Social Transformation,"* in Elizabeth Wamock Femea(ed). *Women and the Family in the Middle East New Voices Chang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5.*
- Bromily, trans. *Theology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IV.* Grand RapidsI: Eerdmans Publishing, 1977.
- Charlottem Buhler . *"Some Observations on the Psychology of the third Force."* *Journal of Humanitic Psychology.* Vol 5.
- Gebring, Roger. *House , Church and Mission: The Importance of Household Structures in Early Christianity,*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4.
- Johnson, David W. and Roger T. Johnson. *Cooperration and Competition: Theory and Research* Edina MN: Interaction Books, 1989.
- Lee, So-Hee *The Concept of Female Sexuality in Korean Popular Culture."* *In Under Construction: The Gendering of Modernity. Class, and Consumption in the Reublic of Korea.* Laurel Kendall, ed. .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 Park, Han Soo. *"A Study of Missional Structures for the Korean Church for Its Postmodern Context".* School Intercultural Studies. Ph.D.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8.
- Pak, Jun Gyu. *"A Missional Ecclesiology for the Korean Church in Postm-odernity".* Ph.D.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4.
- Peter, Heine. *Food Culture in the Near East Middle East North Africa,* Green Wood Press London. 2004.

Vita of  
JungChul Shin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Hanwoori Presbyterian Church, Daegu

Personal Data:

Birthdate: August 16, 1964  
 Birthplace: Gwangju  
 Marital Status: Married to Hyangan Jeong  
 with Three children, Youri, Issac and  
 Hanna  
 Home Address: 103-102 Hwasung Town Apt. 173 bokheen-  
 Street, Bouk-Gu, Daegu, Gyeongsangnam-Do  
 Phone: 070-8755-4502  
 Denomination: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Ordained: October 11, 2005

Education:

B. A.: Jeonnam University, Gwangju, 1991  
 M. A.: Chongshi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2000  
 D. P.: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04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5

Personal Experience:

1/2013 to present: Senior Pastor  
 of Hanwoori Presbyterian Church, Daegu  
 1/2011 to 12/2012: Senior Pastor  
 of Nanumeuy Presbyterian Church, Yongin  
 11/2005 to 10/2010 Missonary  
 of tajikistan, Dusanbe